

충남 문화

2024 No.30

Chungnam
Cultural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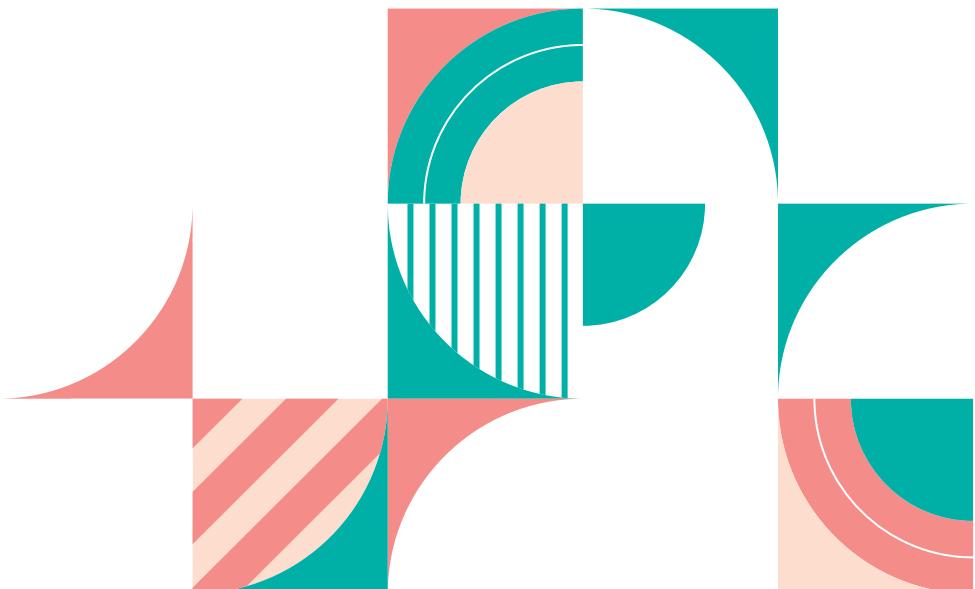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문화

2024 No.30

Chungnam
Cultural Magazine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문화원 바로가기



Contents

지방문화원 소식

- 6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제1회 문화봄소풍
- 천안시서북구문화원**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과 행사
- 공주문화원**
〈오키나와 세계문화유산 답사기행문〉
귀로 보는 류큐왕국, 발로 읽은 세계유산
- 18 보령문화원**
 - 국립극장 우수 공연작 감상길 열려
 - 전통여로 방식 – 어설, 교육 및 체험기회 생겨
- 서산문화원**
우리지역의 역사를 배우다
- 논산문화원**
 - ‘논산단오’ 시원한 여름 나기
 - 유월음악회
- 28 계룡문화원**
 - 제1회 사계전국휘호대회
 - 2024년 성년의 날 행사

문화예술 동아리

- 50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아름다운 기억’ 「추억 스케치 동아리」
- 온양문화원**
‘시서화 동아리’ 반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 오르다
- 논산문화원**
포토스(Photos) 사진은 머리로 보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렌즈로 읽는다.
- 56 계룡문화원**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보그 포토”

- 32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 – 신성대학교 업무협약식 개최
- 부여문화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 서천문화원**
‘우리는 국가유산지킴이입니다.’ 국가유산 보호 지원사업
- 38 청양문화원**
 - 제25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성료
 - 청양문화원 – 송파문화원 업무협약
- 홍성문화원**
찬란하게 꽂피운 ‘홍성문화원의 70년 역사’
- 예산문화원**
지암김구전국서예대전 학문과 예술정신 계승의 장
- 46 태안문화원**
2024 가족문화체험
해남 · 원도로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 58 당진문화원**
당진 최초의 실버합창단 ‘노소미합창단’
- 서천문화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서천문화원 피아노반”
- 예산문화원**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 가곡 클래스
- 64 태안문화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태안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아리 「Shal We Dance」

충남, 풍경에의 유혹

- 68 천안시동남구문화원**
태조산 & 무장애나눔길
- 공주문화원**
따뜻하게 새로 난 ‘충청감영길’
- 보령문화원**
하늘을 날다 성주산 전망대 (페러글라이딩 이륙장)
- 74 온양문화원**
이산 이종무공 묘소
- 서산문화원**
신비의 섬 「긴월도」
- 논산문화원**
땅에 뜯 별을 찾아 「김관식시비」
- 80 당진문화원**
'관광포구'로 발돋움하다. 한진포구 해안산책로 개통
- 금산문화원**
칠군송 (七君松)
- 서천문화원**
붉은 동백꽃과 낙조가 아름다운 곳,
미량리 동백나무숲
- 86 홍성문화원**
서해안의 명물, 홍성 스카이 타워
- 태안문화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태안의 ‘эм플레이파크’

충남의 문화유산

- 92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천안의 천연기념물, 광덕사 ‘호두나무’
- 서산문화원**
내포기야산, 내포불교와 보원사지 문화유산 이야기
- 당진문화원**
손병희선생 ‘유허지’
- 100 온양문화원**
아산의 국보『이순신 장검』
- 104 금산문화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제16호 물폐기농요』
- 부여문화원**
신유회가 : 시대를 넘어선 노래의 여정
- 서천문화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사짜기 기능보유자 방연옥
- 109 태안문화원**
자연

향토문화광장

- 112 보령문화원**
충청수영 권설봉수
- 118 금산문화원**
증봉 조현 선생 초상에 대한 소고(小考)

충남문화원연합회 2024 상반기 사업 및 활동

- 122 임호빈 청양문화원장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에 취임**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환경의 날 기념식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
- 충남문화원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문화리더 워크숍 개최



충남문화원연합회 회장
임호빈

충남문화를 발간한 지도 어느덧 3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유히 흘러온 기나긴 역사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채로운 충남문화 활동 작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내주신 시·군 문화원장님과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청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선비의 고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선비의 고장이란 명칭은 충청의 역사 속에 뿌리내린 전통에 드러난 호칭일 것입니다. 충청지역은 조선 중기의 예학(禮學)을 삶의 모든 면에 실행한 사계 김장생 선생을 비롯한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 명망 있는 유학자들을 다수 배출하여 기호 사림 학파의 근간을 형성하였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국가의 통치 철학으로서 성리학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지역 충남의 선비들은 학문과 덕행으로 양반의 예절과 충절을 실천하는 근간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충청의 선비정신은 조선 후기의 실학, 한 말의 위정척사 운동 및 의병 활동, 일제강점기의 개화 운동과 민족운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 자산 김복한 선생으로 이어진 민족정신은 충남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적 토대를 이뤄온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의 땅은 청풍명월의 고장이란 별칭도 있습니다. 청풍명월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이름 붙였다 하지만 충청도는 그만큼 수려한 지세를 가지고 있고 예술이 융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고한 정신적 사고의 고양과 예술의 환경을 갖춘 충청의 위상은 우리나라의 정신적 자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풍요로운 예술의 발전은 우리나라 예술을 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문화의 지향을 이끌어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는 한류 문화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문화는 16개소 문화원의 살아 꿈틀거리는 용솟음으로 화려한, 수그려들지 않는 열정으로 휘몰아 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30번째 『충남문화』로 응결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답습이 아니라 각 지역의 숨 쉬는 역사를 살리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창달하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충남의 16개 문화원은 시대를 이끄는 문화의 용광로로, 중용과 포용, 그리고 융합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충남의 문화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의 선두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소식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천안시서북구문화원
공주문화원
보령문화원
서산문화원
논산문화원
계룡문화원

당진문화원
여주문화원
서천문화원
청양문화원
홍성문화원
예천문화원
안동문화원



2024년 제1회 문화봄소풍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국경일인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까지... 크고 작은 여러 봄철 행사들이 5월을 가득 채우는 시기이다. 각 지역 시·군과, 그 지역의 문화원들도 3월~5월까지는 각종 지역 축제와 다양한 행사들이 빈번하게 개최되어, 지역민과 해당 지역을 찾는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준비가 잘된 행사들은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지역행사나, 그 안에 준비된

내용들이, 간혹 호평이 아닌 혹평에서 벗어나기 힘들 때도 있다.

모든 행사들은 방향에 맞는 주제, 예산, 구성(내용), 지역주민들의 참여도·호응도 등 운영의 원활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사전 준비들이 필요하다. 본원에서도 항상 이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업계획을 구상한다. 그래서 동남구문화원에서는 가족들



이 함께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들이 느낌이 묻어나는 지역축제를 계획하고 있었다.

다행히, 전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본원에서는 동남구 지역 내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시청으로부터 대여 받았다.

장소는, 청수호수공원. 장소가 정해진 이후, 사무국은 첫 행사 준비에 신속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 공원의 시설구조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드넓은 광장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공원내외 산책로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가볍게 외출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인접성까지... 가벼운 봄나들이의 최적의 장소였다.

본원에서는 가족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무료체험 부스를 본원에서 행해지는 문화교실수업들로 구성하였다. 수채화, 민화, 유화, 지호공예, 전통다도체험 등 5가지를 준비해 보았다. 이는 수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및 호기심 등의 홍보효과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공방 2곳과 협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모루인형, 소이캔들, 크리스탈팔

찌, 석고방향제 등)체험도 구성하였다.

문화원 수업관련 체험부스의 반응은, 전체적인 행사종료 시각보다 2시간 전에 모두 종료가 될 정도로 시민들로 가득한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유료체험들도 다행스럽게 행사종료시각 까지 잘 운영이 되었다. 또, 체험부스마다 완료스티커를 배부하여 일정 개수를 채우면, 요즘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스티커사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무료 사진은 남녀노소에게 꽤나 좋은 호응을 불러왔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서적공간을 마련하여 역사 교육적인 측면도 놓치지 않았다)

한편, 무대에서는 버스킹공연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3팀, 성악공연, 전통춤 공연, 학생댄스공연, 어린이버블쇼, 벌룬마술 쇼 등 다양한 공연들로 구성하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자리 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다. (객석은 250~300개)

그리고,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와 협업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희망



일터에서 근무하는 지역거주 장애인분들을 위해 쓰여 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원 내 풋살장 인조잔디공간은, 스스로 체험이나 공연을 즐길 수 없는 영유아 수준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에어풀, 에어바운스, 에어스포츠 기구 등을 이용한 놀이터로 구성하였다. 그 외의 민속놀이거리들도 준비해두었는데, 투호던지기, 굴렁쇠놀이 등에서 가족 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훈훈해 보였다. 영유아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에 대한 유의가 매우 민감하였기에, 안전요원을 대다수 배치하여 학부모들과 함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게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쉴 수 있는 파라솔을 10여개와 의자 50여개를 배치하여 그늘에서 영유아들을 돌보는 학부모(어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무대에서는 소소한 금액의 경품들도 50여 가지 정도 본원에서 준비하여 학생들과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증정해 드리고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시민들이 즐거운 저녁 귀가길이 되도록 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지 못한 점, 지역 내 다른 행사와 시기가 겹친 점, 인지도가 없었던 첫 시즌의 축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의 참여율은 높은 편이었다. 무대 앞 객석은 300석, 전체 체험부스 참여의자는 약100석, 어린이놀이터의 시간대별 평균이용 인원은 약100명 정도 제한하였다. 11시에 시작하여 18시에 종료된 전체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제1회 문화봄소풍’에 참여해 준 천안시민들은 1,000명~1,5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첫 행사를 마무리하고 작은 소회를 밝혀본다. ‘시민들에게는 주제와 내용이 충실히 다가가고 전달되었는지, 참여도와 호응도는 어떠했는지, 준비에 있어서 예산은 효용성 있게 사용하였는지, 그밖에 수정·보완할 사항들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었던 혹평과 호평속의 걱정과 기대보다는,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더 나은 준비와, 시민들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2025년의 봄소풍을 기약해 본다.

2024년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상반기 주요사업과 행사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의 보전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사업 및 행사에 대해서 문화가족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이·취임식 성황리에 개최

지난 5월 14일, 제16대 천안시서북구문화원장 이·취임식 행사가 천안시 성환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임 문화원장인 이관섭 문화원장의 취임과 함께, 이임 원장인 이종석 원장의 이임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화원 회원들과 지역사

회의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임호빈 충남문화원연합회장, 강전섭 충북문화원연합회장, 충남 16개 문화원 원장님과 전국 문화원 원장 및 직원들, 박완주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 당선자, 박찬우 전 국회의원, 이종택 천안시 서북구청장,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 유성재 오인철 이현숙 도의원, 김철환 육종영 시의원 등 300여 명 문화가족 및 내·외 귀빈) 끝까지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임식에서 이종석 전 원장은 “지난 12년간 문화원의 발전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석 원장은 임기 동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신임 원장인 이관섭 원장이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이관섭 원장은 “문화원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신청사 사업을 조속히 추진 해서 지역 주민이 좋은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관섭 원장은 국가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행정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문화원 운영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화원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

졌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가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회원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회원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2024 천안장사 민속씨름대회

지난 5월 3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에서 개최된 천안장사 민속씨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함께해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대회 당일 5월 3일, 개막식에서는 천안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식 후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식전 공연으로는 천안시성환풍물단이 길놀이 및 웃두리농악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이어서 본식 후에 천안삼거리 흥타령민요진흥회에서 태평가, 밀양아리랑 전통민요 공연을 그리고 천안시서북구문화원 문화교실 한국무용팀의 태평무, 입춤을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일반부 씨름 선수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많은 관중들이 모여 응원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장사 타이틀 매치에서는 일반부 배연준 선수가 차지하며 영예의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학생부 경기에서도 일반부 못지않은 치열한 경기를 펼쳐 3체급에서 순위를 가렸습니다.

40kg이하에서는 김지후 선수가 50kg이하에서는 황선중 선수가 70kg이하에서는 한지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천안장사씨름대회는 천안 능수 한우 축제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전통 놀이 체험과 다양한 먹거리 부스가 마련된 푸드존에서는 천안의 맛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안장사씨름대회는 씨름 경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함께 어우러져 전통 문화인 씨름을 관람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을 즐기며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와 먹거리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배연준 선수를 비롯하여,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장은 천안장사 민속씨름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내년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천안장사씨름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행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타마우둔

〈오키나와 세계문화유산 답사기행문〉 귀로 보는 류큐왕국, 발로 읽은 세계유산

오랜만에 공주문화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적 답사에 참여하였다. 올해는 4월 19일부터 22 일까지 오키나와에 있는 세계유산을 탐방했다. 오키나와의 옛 이름은 류큐[琉球]이다. 2000년에 〈류큐왕국의 구스크 및 관련 유산군〉 9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성 1개소, 성곽 4 개소, 왕릉 1개소, 조경유적 1개소, 종교유적 2 개소 등이다.

19일 새벽 5시 잠을 설치고 일어났다. 금강 둔치에서 6시 10분 문화원장님, 윤용혁 교수님을 비롯한 일행과 함께 출발하여 오전 11시 15 분 탑승, 오후 1시경 나하 공항에 도착하였다.

슈리성, 타마우둔

처음으로 간 곳은 류큐왕국 상씨 왕조의 도성인 슈리성[首里城]이다. ‘버스 학교’에서 윤용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심으로 오키나와의 세계유산에 관하여 미리 알게 되고, 현장답사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류큐왕국은 약 오백 년의 역사가 있다. 왕조의 성씨는 상씨이다. 13세기 역사시대 이전은 패총시대라고 한다. 1427년에 세워진 비석에 슈리성의 연못 조성과 조경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왕조의 정통성을 추측할 수 있다. 오키나와는 구스크의 나라이다. 구스크는



석문

일종의 성채이다. 정치 공간이기도 하고, 군사적 요새이기도 하고, 종교적 장소이기도 하다.

슈리성은 화재로 전소된 후 재건되었다가 태평양전쟁 때 파괴되었지만 복원작업에 성공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다시 전소되어 현재도 복원 중이다. 수누향우다키의 석문(石門)과 성벽, 원각사적을 둘러보고, 천녀교(天女橋)를 건너가 보았다. 천녀교는 15세기말에 조선의 왕으로부터 불경[方冊藏經]을 보관하기 위하여 연못 안에 지은 당집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당집 기둥에 기대어 습한 바람에 땀을 말리며 구름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보이다가도 사라져 버리는 저 구름. 세월유수, 인생무상이라 한들 역사는 흐르고 흐른다고 구스크를 에워싼 이끼들이, 돌 틈 사이 비집고 피어나는 여린 꽃들이 발걸음 잡아끌어 마루에 앉혀놓는다.

성을 둘러보다가 코모야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복제된 종 하나를 보았다. 이것을 반코쿠신료노카네와라고 한다. 1458년 주조되어 슈리

성 정전 앞에 걸려있던 동종의 복제품이다. 반코쿠신료는 세계의 가교라는 의미인데 종에는 ‘류큐왕국은 남쪽 바다의 아름다운 나라이며 조선, 중국, 일본과의 사이에 있어 만국을 잇는 다리로서, 무역으로 번영하는 나라이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지난날 해양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오키나와 최대 번화가인 국제거리로 갔다. 시가지를 한 십여 분 걸어간 후, 철판 스테이크로 저녁을 먹었다. 네팔에서 온 젊은 남자가 즐겁게 고기와 야채를 구워 한 접시씩 덜어주는 것을 편하게 받아먹었다. 주걱과 집게, 양념통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에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6시 30분 식사를 마치고, 라구나가든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에서 3박을 내리 했다.

나카진조, 만자모, 류큐무라

다음날 7시, 호텔 조식을 먹은 후 8시 30분, ‘버스학교’ 1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중세 한국과 오키나와의 교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류큐왕국은 조선왕조와 비슷하다는 것, 류큐왕국은 삼산(북산, 중산, 남산)시대가 있다는 것, 기록에 나온 첫 임금은 영조이며, 1699년 류큐왕국이 꺾어지기 시작하여 메이지유신 이후 1872년 멸망하여 1879년 오키나와현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와의 교류는 분황사탑 사리구에서 조개 3점이 나왔고, 가야 마구에서 조개가 나오고, 공주 옥룡동 무덤에서도 개오지 조개가 나



우라소에 성터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



구스크

온 것이 그 증거라 한다. 버스에서 내려서 간 곳은 나키진죠이다. 슈리성과 비슷한 모습이다. 발굴조사에서 14세기 제작의 고려청자가 출토되기도 하였단다. 나키진 성터를 밟고 역사문화센터를 관람하였다.

점심을 먹고 1시 50분 버스학교 2교시 종이 울렸다. 백제 무령왕과 류큐국의 무령왕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수리성을 지은 상씨 왕조의 바로 직전 임금이 무령왕이다. 백제 무령왕은 40세에 즉위하여 23년간 재위했는데, 오키나와 무령왕도 40세에 즉위하여 10년간 재위했단다. 이곳 무령왕의 아버지는 나무꾼과 선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는데, 우리의 옛날이야기와 스토리가 흡사하다. 여기에서 칼 웅의 원형(archetype)이 떠올랐다. 가이드의 '내리실게요'를 듣고 만자모와 코끼리바위를 향하여 걸었다.

만자모는 오키나와현 지정 명승지이다. 깎아 지른 듯한 벼랑 위의 잔디 대지이다. 1726년 쇼 케이왕이 만자모에 행차하여 '만 명이 앉아도 충분한 들판'이라며 절찬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고 한다. 모(毛)는 들판이라는 뜻이다. 파

도와 접한 들판 아래 벼랑 지대는 석회암으로 구성되었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나가 구멍이 뚫려 있어 코끼리의 형상이다. 코끼리바위라고 한다. 코발트블루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고, 밀려온 파도가 바위에 부서져 흩어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인증사진 한장을 찍고 발걸음을 옮겼다. 3시 15분 만자모에서 출발하여 류큐뮤라(琉球村)로 갔다.

그곳은 100여 년 전 오키나와 전통가옥 및 전통 생활방식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순로(順路)대로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북을 치며 전통 악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춤이 이어졌다. 붉은 두건을 두르고 흰색 상의에 검정 바지, 검정 바탕에 테두리를 붉은 천으로 바이어스 처리한 조끼를 입고 다리를 크게 올리면서 등등 북을 치며 큰 소리로 외치듯이 춤을 추는 쇼이다. 이름하여 에이서 쇼란다. 과격한 춤동작인데 네 명의 무용수 중에 자세히 보니 여성이 두 명이나 되어 놀랐다. 1평 남짓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 간 류큐국 사람들의 축축한 삶이 전통가옥 지붕에, 벽 틈에 스며 있다. 선풍기, 에어컨도 없이 아열대 기후에서 어떻게 숨

을 쉬었을까? 바라보는 내 가슴이 답답해지려 했다.

4시 30분 버스는 자카미성을 향하여 달렸다. 자카미성은 1472년 경 건립된 류큐왕국 시대의 성으로 세계문화유산이다. 성벽 위에

서 바라보는 석축의 곡선이 특별하다. 아치형의 성문을 걸어 들어갈 때 공산성 금서루와 석축을 쌓은 모습이 흡사하여 그곳을 통과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날 저녁은 일본 정식 세트로 먹고 숙소로 돌아왔다. 하루에 만 보 이상 걷다 보니 다리가 노곤하다. 다리 베개에 발을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카톡으로 날아온 사진을 다운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였다.

우라소에 성터, 박물관, 미술관, 평화기념공원, 세이와우타카

셋째 날, 7시에 호텔 조식을 마치고 9시 45분 우라소에 구스크를 향하여 버스는 출발했다. 이것은 슈리성 천도 전에 있던 성인데, 13세기 영조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이는 태평양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지역이 되어 유적이 너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란다. 영조왕릉인 요도레를 만들 때 동굴 안 초석에 기와를 얹은 건축물을 건립하였는데 그 기와에 계유년고려와장조(癸酉年 高麗瓦匠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기와는 오키나와로 탈주한 삼별초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우라소에 구스크 관광을

마치고 나하시에 있는 오키나와 현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였다.

박물관의 외형은 슈리성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이다. 여러 가지 전시품 중에서 특히 슈리성 정전 앞에 걸려 있는 '만국진량의 종'을 직접 본 것이 인상적이었다. 류큐왕국의 기원, 흥망, 근대, 태평양전쟁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여느 박물관처럼 민간신앙, 생활풍습 등을 전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민속박물관과 매우 유사한 것들이 많다. 박물관을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보고 나서 미술관으로 올라갔다.

미술관엔 오키나와 관련 작품들이 많다. 아열대 남국의 풍경이나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그림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 관람을 마치고 회덮밥 세트로 점심을 해결한 후 12시 20분 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 위령탑으로 이동했다. 태평양전쟁으로 희생된 약 20만 명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곳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되어 희생된 한국인 위령탑도 있다. 위령비에 사용된 돌들은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우리는 푹푹 찌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령탑 앞에서 묵념을 드리고 단체촬영하였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오키나와 주민의 2/3가 희생되었고, 우리 국민도 만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이름이 야외기록판에 새겨져 있다. 평화기원자료관에서 특히 전쟁의 피해 상황을 전시한 것 중에 동굴 속 피난민이 아기의 입을 막는 모습이 강력하게 가슴을 후려친다. 오키나와전의 체험을 증언한 증언집을 모아놓



고려 글자가 새겨진 기와



세이화우타키



시키나엔

은 방도 오래 기억될 것 같다. 그 시절에 강제 징용된 우리 외삼촌 할아버지의 알지 못할 소식을 뭉개구름에게 물어본다.

파란 바닷바람이 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 먹먹한 가슴으로 파고든다. 태어나서 전쟁을 겪지 않고 살지 않느냐고, 살았으니 행복한 거 아니냐고. 그래, 맞다. 욕망이 지금의 행복을 헛갈리게 하는 거다. 이만하니 다행이다. 내가 투덜거릴 때마다 ‘더한 데 대거라, 아래를 보고 살거라.’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바람결에 들리는 듯하다.

3시 30분 세이화우타키로 이동했다. 난조시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곳은 류큐왕국 시대 종교적 의례를 지내던 성지이다. 3개의 제사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숲길을 따라 세 군데 모두 찾아갔다. 류큐 최고의 신녀(神女) 기코에오오키미의 즉위 의식이 거행되는 공간이다. 현지인들에게 신성한 성지라 한다. 일행 중 누군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윤 교수님께

서 째게 하라고 한다. 기도소가 세 군데라는 것 이 귀에 쏙 박하게 들어왔다. 나는 막상 그 앞에 서니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이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여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갈라진 바위틈을 응시할 뿐이다. 음습한 바위 틈새로 새어 나오는 햇빛에 우울했던 내 마음을 잠시 말리고 울퉁불퉁한 돌길의 틈새에 소망 하나하나를 메우며 내려와 버스에 올랐다. 오키나와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샤부샤부를 먹고 호텔로 돌아왔다.

시키나엔

마지막 날, 호텔에서 일본식 뷔페식으로 아침을 먹고 8시 30분 시키나엔 관광에 나섰다. 이곳은 류큐 왕실 최대의 별장으로서 국왕 일가의 보양과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데 사용된 세계문화유산이다. 붉은 기와 지붕의 목조건물인 우둔[御殿]과 뜻, 뜻 속의 섬 위에 세운 육모정, 반원형 돌다리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산책 후

버스로 이동하여 뷔페식으로 점심을 먹고 14시 40분 이륙하는 티웨이항공에 탑승하기 위해 나하 국제공항으로 향했다.

17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귀향하는 길에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하고 9시경 무사히 귀가하였다. 이번 답사 동안 많은 견문을 쌓았다. 류큐왕국의 역사와 세계문화유산 구스크 관련, 오키나와의 자연경관, 태평양전쟁의 참혹상, 우리나라와 오키나와의 교류 관계 역사 등등.

일행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공주문화원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버스학교’와 유적지 현장에서 알차고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윤용혁 교수님께 깊은 고마움과 경의를 표한다. 흔들리는 ‘버스학교’에서, 현장에서 체험하게 해주시어 오키나와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발로 읽으며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답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역사 공부

그 자체였다. 아주 즐거운 공부였다. 모르고 보면 쌓아놓은 돌덩이요, 오래된 나무요, 돌덩이 틈새에 낀 풀꽃들이지만, 알고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들이다.

이끼 낀 성벽은 알고 있으리라 류큐왕국의 눈물을 땅을 휘덮은 고목의 뿌리는 알고 있으리라 류큐왕국의 근원을
기왓장에 새겨진 ‘고려’는 기억하고 있으리라
고려 장인의 얼굴을
쪼개진 고려청자는 잊지 못하리라
고려 도공의 지문을
코끼리바위는 잊지 못하리라 폭격의 굉음을
뻥뻥 뚫린 코끼리바위 가슴으로 밀려오는 파도, 파도 영원히 씻어줄 수 없는 상처인 줄 아는지
하얗게 허옇게 거품만 바르다 사라지고
다시 또 달려와 수포로 부서지고
사람들은 사라질 흔적들을 풍경으로 남긴 채 떠나고



국립극장 우수 공연작 감상길 열려

국립극장의 ‘우리동네국립극장’ 사업공모에 선정 초고화질 영상으로 현장에서 관람하는 듯한 몰입감

국립극장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던 공연 작품들을 보령문화원에서 감상할 기회가 생겼다. 7월 1일(월)부터 보령문화원 대강당에서 국립극장 공연 작품들을 매주 한 편씩 상영한다.

국립극장이 지난 10여 년간 야심 차게 기획해 무대에 올려 호평과 찬사를 받은 대표작 14편이 주 1회 상영되는데, 창극, 악극, 무용, 국악 관현악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여러 장르의 공연예술이 총망라된다.

신재완 보령문화원장은 “이번 국립극장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민들에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공간에서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공연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며, “이번 상영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7월에 상영될 작품으로는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창극 ‘춘향’, 수궁기를 모티브로 한 ‘귀토’, 사군자를 소재로 정결하게 담아낸 무용 공연 ‘묵향’, 동화 같은 창극 ‘나무, 물고기, 달’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립극장 공연영상화 작품

상영 일시	포스터	장르	공연명 (제작연도)	작품소개	상영 시간
7/1 (월) 2시		창극	〈춘향〉 (2021)	창극 〈춘향〉은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본능적인 감정인 ‘사랑’에 초점을 맞춘 창극이다. 예기치 않게 찾아온 사랑으로 인해 생의 기쁨을 만끽하다가 신분의 벽에 부딪히며 절망하는 춘향의 이야기를 세련되고 풍부한 질감으로 그려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는 춘향의 강인함이 돋보인다.	143 분
7/8 (월) 2시		창극	〈귀토〉 (2021)	육지의 고단한 삶을 벗어나 꿈꾸던 세상을 찾아 수궁으로 간 토끼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물으로 돌아와 자신의 터전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야기, 〈귀토〉. 이 작품은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우리가 밟딛고 있는 이 땅에서 희망을 찾자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한다.	144 분
7/15 (월) 4시		무용	〈묵향〉 (2017)	사군자를 소재로 한 〈묵향〉은 정갈한 선비정신을 수목화처럼 담아낸 작품이다. 세련되고 단아한 의상과 무대 연출로 전통춤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며 무용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초연 이후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59 분
7/22 (월) 2시		창극	〈나무, 물고기, 달〉 (2022)	현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동화 같은 창극, 〈나무, 물고기, 달〉. 다양한 역할을 오가며 각자의 사연과 소원을 들려주는 소리꾼들의 이야기는 상상의 공간, 수미산에서 시작된다. ‘소원나무’를 찾아가는 여성 끝에 펼쳐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었을 때의 행복에 대해 사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94 분
7/29 (월) 2시		무용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2021)	샤먼을 중심으로 한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는 길을 재연하기보다는 인간이 마주하는 소명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감정을 무용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현대 사회에서 샤먼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며,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64 분
8/5 (월) 2시		무용	〈가무악칠체〉 (2020)	전통 칠체 장단의 무한한 변주를 주제로 한 공연이다. 전통 장단과 한국무용을 세련된 감각으로 풀어낸 역동적인 무대로 “록 콘서트를 능가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 “한 번도 지루한 적 없이 신나고 유쾌하다” 등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72 분
8/12 (월) 2시		무용	〈홀춤 II〉 (2021)	무용수의 섬세한 손놀림과 발놀림, 찰나의 표정과 시선의 변화까지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관객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1인무 모임이다. 국립무용단의 역량 있는 무용수들이 평생 수련해온 전통춤을 안무가격 시선으로 새롭게 퀘뚫어 만든 창작춤들이 펼쳐진다.	70 분

상영일시	포스터	장르	공연명(제작연도)	작품소개	상영시간
8/19 (월) 2시		무용	<2022 무용극 호동> (2022)	국립무용단 창단 6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초대 단장인 송범의 1974년 작 <왕자 호동>과 1990년 작 <그 하늘 그 복소리>를 모티프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이야기를 넘어 국가의 억압에 맞서는 자아를 파격적인 신체 언어와 화려한 무대 미장센으로 표현했다.	77 분
8/26 (월) 2시		국악 관현악	<Vivid : 음악의 채도> (2022)	'비비드(Vivid)'를 주제로 꿈·자연의 신비·상상력 등을 음악으로 표현한 공연이다. 작곡가 양승환, 이신우, 이정호가 국악관현악의 매력으로 그려낸 위축 창작곡과 지휘자가 선정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창작음악의 청사진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82 분
9/3 (화) 7시		기획 공연	<명색이 아프레걸> (2022)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 박남옥의 주체적인 삶을 조명하는 공연이다.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영화관을 찾은 박남옥의 노래로 시작되는 작품은 그녀의 첫 영화이자 마지막 영화가 된 '미망안'의 제작 과정과 영화 속 장면들, 그리고 과거 그녀의 삶의 단편들이 교차되며 펼쳐진다.	108 분
9/10 (화) 7시		국악 관현악	<엔통이의 동요나라2> (2022)	감정 표현이 서툰 어린이 교진이가 악기친구 엔통이와 함께 악기나라를 여행하며 자신에게 맞는 감정표현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16곡의 동요와 함께 우리 전통악기의 아름다움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6 분
9/24 (화) 7시		국악 관현악	<디스커버리> (2023)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라 여자경이 지휘하는 <디스커버리>는 국악관현악 명곡을 새롭게 탐미하는 공연이다.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로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국악관현악 감상 스펙트럼 확장하는 다섯 곡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71 분
10/1 (화) 7시		국악 관현악	<역동과 동력> (2022)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가야금 명인 지순자, 하피스트 황세희, 거문고 명인 정대석과 함께 국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대이다. '역동'적인 예술세계를 조명하며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 시대·지역·장르를 초월한 국악관현악의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다.	98 분
10/8 (화) 7시		국악 관현악	<천년의 노래, 리버스> (2021)	해오름극장 재개관을 기념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첫 공연이다. 나호신 작곡가의 '저 소나무처럼', 안숙선 명창과 협연한 '홍보가 中 박타는 대목', 그리고 한국 지성의 큰 산맥 이어령이 작사한 '천년의 노래, REBIRTH' 까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세 곡의 연주 실황을 만날 수 있다.	67 분

전통 어로 방식 어살, 교육 및 체험기회 생겨



우리 지역 바닷가에서 면 옛날부터 행해져 오던 어살(漁箭) 고기잡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보령문화원은 금년 국가유산진흥원(구 한국문화재재단)의 「국가무형유산 공동체종목 지역연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민들을 위한 어살교육 및 체험활동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전통 고기잡이 방법인 '어살(漁箭)'은 지난 2019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에 의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된 바 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어살'을 널리 알릴 기관으로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보령문화원을 선정하고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어살'은 우리나라 어촌의 대표 전통 어업문화로 개울이나 강, 바다 등에 나무 울타리를 치거나

돌로 울타리를 쌓아 밀물에 들어온 고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로 방식이다.

개울이나 강, 바다 등에 싸리나무, 대나무, 장나무 등을 날개 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꽃아 울타리를 쳐두면, 밀물엔 이것들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 고기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되면 그물이 되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원리이다. 나무 울타리 대신 돌을 쌓고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로 방식은 독(돌)살이라고 한다.

신재완 원장은 일반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치는 '어살-내 손안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어로 활동 방법이 잊혀지지 않고 세세에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 표는 ‘어살 – 내 손안에’ 하반기 프로그램 교육일정이다.

차수	구분	일시	내용	장소	강사명
3차 (일반)	강의1	7월 3일(수) 14:00~16:00	서해의 지형적 특성으로 본 전통어업 활황 비결	보령문화원 교양3실	황의호 (전 보령문화원장)
	강의2	7월 17일(수) 14:00~16:00	서남해안 전통어로 방식과 민속문화	보령문화원 교양3실	
	강의3	7월 24일(수) 10:00~12:00	어살을 활용한 어로작업 현황과 어획자원 소개	보령문화원 교양3실	황의호 (전 보령문화원장)
	중식	12:00~13:00			
	체험	7월 24일(수) 13:00~16:00	어살 만들기 및 어로작업 현지 답사 및 체험	몽산포 일원	황의호
4차 (가족, 학생)	강의	8월 10일(토) 10:00~12:00	어살을 활용한 어로작업 현황과 어획자원 소개	보령문화원 교양3실	황의호 (전 보령문화원장)
	중식	12:00~13:00			
	체험	8월 10일(토) 13:00~16:00	어살 만들기 및 어로작업 현지 답사 및 체험	몽산포일원	황의호

(5차 : 8/17) 4차와 동일 내용 진행

(6차 : 8/24)

(7차 : 9/21)

■ 물 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됨



독살 체험중인 1차 수강생들



어살 – 문화유산청 제공



2024년 충남학(서산학) 프로그램 [우리지역의 역사를 배우다]

양반의 고장이라고 불리우는 충청남도는 풍부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로 백제문화의 뿌리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지역민들은 충청남도와 우리 고장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지역의 역사를 깊게 탐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19회차로 서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남학(서산학) 강의를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역사적 이론과 문화자원 탐방으로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는데, 충남학 13회차, 서산학 6회차로 총 19회차로 운

영하였다. 그 중 충남학은 충남인재육성개발원에 소속되어 실력있는 강사진을 섭외하여, [충남학이란 무엇인가, 한눈으로 보는 충남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연장 3층에서 30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이론강의를 진행하였다.

3시간가량의 길고 긴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알찬 강의를 진행해 주신 강사진들과 배움의 열정이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였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교육을 듣는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물밀 듯 밀려들어왔다.

충남학(서산학) 강의는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

는데, 이론 강의와 더불어 매주 목요일마다 충남과 서산지역을 방문하는 현장답사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천안/아산, 계룡, 논산, 공주, 보령, 서산 등 충남의 주요 명소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강의를 함께 들으며 아름다운 문화 유적을 바라보니 수강생들이 환한 웃음꽃을 피었다. 단순히 강의에서 듣는 것을 넘어, 실제로 역사와 문화를 느끼며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강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수강생들이 서로 활발하게 지식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학습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한 수강생은 ‘서산에 이사 오고 나서 우리 지역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이 마음 한 편에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이론공부도 하고 답사도 가보니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

아 행복하다.’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현재 충남학 프로그램은 5월 30일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며 14명의 수료자들과 함께 수료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점차 충남학(서산학)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란다.



‘논산단오’ 시원한 여름 나기

논산문화원은 지난 6월 8일 ‘논산단오’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세시풍속의 하나인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마당에서 길놀이가 시작을 알리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단오 부채, 장명루 팔찌, 전통 제기, 소원 종, 창포 비누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다. 큰 나무 아래 설치한 그네와 널을 뛰어 보고 창포에 머리를 감아 보면 단옷날 즐겼던 전통 민속 행사들이 흥미와 의미를 더했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특히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체험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단옷날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으면 대추가

많이 열린다는 풍습에 착안한 프로그램으로, 본원 발간『논산의 민속놀이』 중 단오 자료에서 참고한 것이다. 단옷날 역시 전통 음식 등 먹거리에는 빠질 수 없다. 세시 음식인 수리취떡은 떡메치기로 재미와 맛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화전과 화채, 장떡 등 먹거리들도 인기를 끌었다.

향기마루에서는 국악의 향연이 펼쳐졌다. 해금 독주, 대금 앙상블, 가야금 합주 등 연주를 감상하고 국악가요와 민요 메들리를 들으며 추임새를 넣으며 큰 환호와 박수도 보냈다. 공연에 이어 콩 옮기기, 어린이 팔씨름, 윷놀이 경연이 펼쳐졌다.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어서 가족 단위 시민들이 많았다.



향기마루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열띤 경연 속에서도 탄성과 웃음이 교차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투호와 제기, 돌림판 단오 문답은 현장에서 누구나 참가하여 상품도 받을 수 있어서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투호와 제기차기는 전통 놀이도 즐기면서 성공하면 선물도 받아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돌림판 문답은 줄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참여자가 많았다. 돌림판으로 문제 난이도를 결정하고 맞추면 상품을 받는 코너로, 단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단오 추억 만들기는 요즘 핫한 인생네컷이다. 로비에 설치해 다양하게 분장도 하고 예쁜 포즈로 사진을 담아 갔다.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청년회의소가 후원한 ‘논산단오’는 작년보다 많은 시민이 참가해 여름 축제로서 손색이 없었다. 단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공연 등을 정성껏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주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몇 년간 연초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개최하지 못했다. 작년부터 대보름 행사를 단오 행사로 전환하여 2년째 단오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대보름 행사도 그랬지만, 우리 전통 풍습과 놀이 문화가 얼마나 재미있고 뜻깊은지 새삼 소중함을 느낀다.

유월음악회

논산문화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건양대 문화콘서트홀에서 900여 명의 시민의 참석한 가운데 유월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는 권선옥 시 「그 사람을 생각한다」를 오정자 시낭송가가 읊으며 시작했다. 논산시립합창단 중창단 군가 「전선을 간다」 등을 불러 시낭송의 감동을 이어갔다. 노래 「개똥벌레」로 유명한 가수 신형원 씨가 출연해 여러 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팝페라 카이로, 뮤지컬 배우 카이, 차지연 씨는 뮤지컬 팝스오케스트라와 협연해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 출연진은 「붉은노을」을 불러 음악회는 절정에 달았다. 논산시 주최로 3회째 열린 이번 음악회에도 논산시 9개 보훈단체 회장을 초청했다.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으로 화합하는 멋진 구성으로 잊지 못할 감동을 전했다.

글_김용배



제1회 사계 전국휘호대회

2023년 12월 개원한 계룡문화원의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4월 28일 사계고택에서 진행한 제1회 사계 전국휘호대회에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고택의 향기가 흡뻑 느껴지고 옛 조상들의 정취가 살아있는 사계고택(계룡시 두마면 소재)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예술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처음으로 개최된 사계 전국휘호대회는 기호유학의 거두인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사상과 충의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1회 사

계문화제'와 함께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사계 전국휘호대회는 지역 사회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주최한 대회로 한글, 한문, 문인화, 캘리그래피, 학생부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여러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열정과 예술적 재능이 빛나는 행사였다.

사계 전국휘호대회는 우수한 작품 선정을 위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 심사위원들을 위촉하여 엄정하고 공



정하게 심사하였다. 심사위원들은 예술적인 완성도를 평가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150여 명의 참가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5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영예의 대상은 한문 부문 일반부 흥순형 씨가 선정됐으며, 학생부에서는 문채연 학생이, 최우수상은 송이슬(캘리그래피), 최인규(한글), 이은화(문인화)씨가 각각 차지했다.

휘호대회 시상과 선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반부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5명), 특선상(12명), 특선(32명), 입선(91명), 학생부 대상(1명), 우수상(3명), 특선상(6명), 특선(3명), 입선(2명) 또한, 수상작은 6월 20일까지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에 전시되었으며,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사계 전국휘호대회에 참가한 작가분들의 우수한 작품을 통해 문

화의 향수에 스며드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한편, 이번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해군 군악대의 식전 축하공연 프로그램은 시상식 및 전시회에 참가한 수상자와 가족들에게 훌륭한 공연으로 그 의미를 더하고 감동을 주었다.

임영우 계룡문화원 원장은 "참가한 모든 작가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계룡문화원은 "올해 처음 열린 사계 전국휘호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들의 열정과 재능으로 인해 이번 대회는 큰 성공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또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이번 대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휘호대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성년의 날 행사

계룡문화원은 올해 두 번째 사업으로 지난 5월 19일 전통문화 보존 계승과 성년을 맞이하는 성년 대상자들과 뜻깊은 성년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기 위해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계룡시 성년 대상자 25명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문화유산 전승을 지원하기 위

해 예학의 거장 사계 김장생 선생이 기거하던 사계고택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판소리 춘향가 축하공연으로 시작하여 개복 의식인 초가례, 재가례, 삼가례 의식을 거쳤다. 남자인 경우 갓을 쓰고, 여자인 경우 쪽을 올려 비녀를 꽂는 관례 의식으로 진행되었다. 성년식 주인공들이 의복을 갖춰 입고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절을 올려, 지켜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임영우 계룡문화원 원장은 “전통 성년식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전달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어, 우리 문화를 이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 부모는 “자세히 몰랐던 전통 의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딸이 벌써 20살이 되어서 성년식을 한다니 끊임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통적인 절하는 법,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남자는 왼손을 위로 올려 손을 맞잡는 공수법, 술잔 받는 법 등을 배워 좋았다. 점점 사라져가는 기초적인 예절이지만 요즈음도 큰절 할 자리, 또는 손을 맞잡을 때가 많은데 잘 배워서 잊지 않고 의례에 맞게 해 보고 싶다”며 참석하길 잘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계룡문화원 성년의 날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당진문화원-신성대학교 업무협약식 개최」 지역문화를 통한 상생 발전의 계기 마련

당진문화원(원장 김윤숙)과 신성대학교(총장 서명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27일(화) 오전 11시 당진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에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와 성실로 당진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윤숙 당진문화원장은 “그동안 당진문화원은 지역의 대학교와 적잖은 교류를 지속해왔는데 특히 신성대학교와는 문화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인 교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신성대학교와 당진문화원 간 업무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인적으로 서로 상생 발전하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가 활성

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범 총장 대신 협약식에 참석한 유영창 신성대학교 대외부총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당진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두 기관이 협력하여 당진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두 기관은 전문지식과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하여 ▶당진시 지역문화 활성화 협의 ▶당진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당진문화원-신성대학교 간 지역문화 진흥 프로그램 공동 운영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협업을 위해 노력 ▶기타 당진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협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협약식 이후 지난 5월 31일(금) 당진문화원은 신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4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하였다. 이번 탐방에는 신성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외국인(베트남) 학생 40여 명이 참여하여 5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지시줄다리기를 테마로 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을 비롯해 ‘SNS 사진 맛집’ 아미미술관, 내비 게이션을 이용해 가장 많이 검색한 충청남도 내

명소로 알려져 있는 삽교호 관광지 및 합성공원을 찾아 당진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해 직접 보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지시줄다리기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6개 종목,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이 국가 간 공동등재의 형태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는데 이를 기념해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는 베트남의 줄다리기인 ‘깨오꼬(Kéo co)’ 관련 전시물이 있어 베트남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앞으로도 당진문화원은 신성대학교와 함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글_이미영



참여한 3명의 지휘자와 89명의 단원이 함께하여 4,000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물하였다.

올해 2024년 상반기(2월~6월) 교육의 성과로 첫 연주회인 제22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음악이 흐르

는 궁남지' (2024. 7. 6(토) 18:30 ~ 19:40) 연주회는 TJB아나운서 김설의 진행으로 가수 둠에토, 소프라노 변지영, 오카리나 모은혜의 협연과 오페라 월리엄텔 서곡,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백조의 호수 모음곡 중 6, 8번곡을 연주하여 궁남지 수상무대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을 더하여 3,000여 명의 관중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 신입 단원들이 함께한 이번 연주회는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감동이었다.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할 때마다 실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장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보며 부여문화원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문화원에서 수행한 많은 사업 중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연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예정된 하반기 교육과 제70회 백제문화제 초청연주회, 제주도 합동캠프 및 연주회, 그리고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더욱 성장해 나갈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를 기대해 본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

자 2014년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구 농어촌희망재단)의 「금난새와 함께하는 농어촌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으로 창단하였다. 이후 예산부족 등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클래식의 불모지였던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로 현재 10년째 활동하고 있다.

단장 이철수, 지휘자 박복식, 바이올린(1st 최현아, 2nd 함새롬, 3rd 박민), 비올라 우길옥, 첼로 황지수, 더블베이스 윤재웅, 플롯 임아름, 오보에 박수경, 클라리넷 이종관, 호른 우길제, 트럼펫 김동화, 트럼본 유승표, 타악기 손기영 등 13명의 파트 강사와 부여군 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69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까지(3시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방의 농촌지역인 우리 부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악기교육을 통한 “책임과 배려”,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심어주는 엘 시스템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간) 파트교육 및 합주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클래식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예산확보부터 강사 섭외 등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단원 모집공고를 내고 70명 모집에 12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들었다.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참가한 청소년들의 간절함이 느껴져 오래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듯 하였다. 그 간절함으로 시작한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이제는 명실상부 부여의 자랑스러운 유일무이한 오케스트라로 활동하며 매년 지역의 대표축제 및 행사 초청 연주회,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전년도 2023년은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의 지원으로 괴산청소년오케스트라, 고령 대가야청소년오케스트라, 부여청소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합동캠프 및 연주회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2023 대백제전」 주무대에서 개최된 'KYDO 오케스트라 백제를 만나다' 합동연주회는 캠프에



‘우리는 국가유산지킴이입니다.’ 국가유산 보호 지원사업

2024년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이란 용어로 변경하여 올해부터 ‘국가유산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국가유산 지킴이는 국가유산청과 (사)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최하는 2024 국가유산 보호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관내 중학생 50명으로 구성된 국가유산지킴이들과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생태보전의 가치를 인정받은 서천갯벌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정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서천갯벌은 장항읍, 마서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의 5개 읍, 면에 걸쳐 72.5km에 달하며, 해안사구와 모래갯벌이 잘 발달하여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 있게 조성되어 있어 수산물이 풍부하다. 그래서 100여 종의 희귀 철새들이 쉬었다 가는 곳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로 보전 가치가 뛰어나 서천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습지의 날 (2008. 2. 1)에 서천 선언문에서 서천군 서면 (월호리), 비인면(다사리, 장포리), 종천면(당정리) 및 유부도 일대의 연안습지 15.3km² 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009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4월 19일에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첫 번째 활동을 가졌다. 서천국가유산지킴이 발대식으로 국가유산지킴이 선서와 서천갯벌 교육, 국가유산지킴이에 바란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시원한 봄비가 내리는 4월 20일에 두 번째 활동으로 서천갯벌 중 장항 송림갯벌에서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을 가졌다. 비오는 날씨에도 많은 지킴이들이 참여하여 갯벌의 쓰레기를 줍고 스티로폼,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심각성도 몸소 느끼기도 했다. 비도 내리고 정화활동은 재미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싫어할 줄 알았는데 서로 웃으며 열심히 활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돌아오는 여름에는 다른 지역의 갯벌을 돌아보며 서천갯벌의 생태와 보존상황 등을 돌아보며 서천갯벌 보존방법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네 번째 활동은 송림갯벌 외의 다른 서천갯벌을 정화하며 갯벌의 기능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관찰할 예정이다. 마지막 활동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해단식과 더불어 2024년 활동을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고 서천갯벌 보존 및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정화활동을 하며 습득한 해양쓰레기를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며 마지막 활동에 대한 아쉬움도 달랠 것이다.

국가유산지킴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서천군청소년수련관의 협조로 국가유산지킴이 학생들을 수월하게 모집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 진행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본 지면을 통해 국가유산지킴이 친구들과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반기의 활동도 기대해 본다.

올해 다섯 번의 국가유산 지킴이들의 활동은 끝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서천갯벌의 정화활동과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서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우리 국가유산을 지키고 알리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서천갯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서천국가유산지킴이 화이팅!!!!



제25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성료

마을장승제 5개 마을 참가, 전통문화 이어가

올해로 스물다섯 번째를 맞이한 청양칠갑산 장승문화축제(추진위원장 임호빈, 청양문화원장)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만여 명의 방문객과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청양의 장승 문화를 계승하고자 열리는 축제는 이를 동안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행사는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건강걷기와 접목한 대장승 건강걷기를 시작으로 대장승제를 지내며 막이 올랐다. 이어서 축제의 주무대

에서 군내 각 기관장과 출향인,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2기의 장승에 김돈곤 군수가 청양대장군, 임호빈 추진위원장이 칠갑산여장군의 글귀를 명문하는 장승명문식을 거행하여, 장승제의 의미를 더했다.

개막 축하공연으로 블라드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가수 이정석·이규석·전원석의 로맨틱 콘서트가 펼쳐졌다.

이어 마을장승제 시연, 전문 장승작가가 보여주는 장승깎기 등 장승 최대 보존 지역으로서의 상징성과 전통을 보여주는 행사가 진행됐다. 대치면 대치리 등 5개 마을에서 참여한 마을장승제는 전문 해설사 진행으로 장승 문화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장승의 이해도를 높였다.

마을장승제를 관람한 관람객 A씨는 “전에는 해설 없이 장승제를 지내 마을 장승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해설을 해주어 마을마다 장승제의 의미와 성격이 다 다른 것을 알게되어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전통문화 축제의 성격에 부합된 전통 줄타기와 장승길쌈놀이, 웃다리농악 등은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은 행사였다.

4월 21일에는 대장승을 배경으로 전통혼례식이 거행됐다. 회혼례를 맞이한 부부나 혼례식을 치르지 못한 청양군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한 이번 혼례식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다.

현대 결혼식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혼례식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겐 신선함을 어르신들에게 옛 추억을 선사했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운영했다. 장승을 주제로 하는 장승비누·미니솟대·에코백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청양 장승가요제와 장승그리기대회 등도 진행하여 열기 가득한 행사장을 만들었다.

아낙네 국수장터, 푸드트럭, 두부·인절미 만들기 등 먹을거리, 피에로 풍선, 마임·마술 퍼포먼스, 청양산채소비촉진전이 연계해 열렸다.

임호빈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장승 문화 축제의 성격에 부합되는 행사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최고의 장승문화 축제로의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장승을 친근하게 느끼는 축제, 청양 장승의 전통을 다지는 축제가 되었기를 바란다. 축제장을 찾 아주신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한 청양문화원 ↔ 송파문화원 업무협약식

■ 일시 : 2024. 5. 31.(금) 15:40 ■ 장소 : 청양문화원 3층 회의실



청양문화원 – 송파문화원 업무협약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수준 향상 목적



청양문화원(원장 임호빈)과 송파문화원(원장 김현신)이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문화원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유대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하였다. 업무협약서는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추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상호 홍보 및 참여 지원 협조 등 우호 증진 전반에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식은 송파문화원 임원진과 회원 40여 명이 문화답사로 청양을 방문한 5월 31일 이뤄졌으며, 청양문화원 임원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임호빈 청양문화원장은 “김현신 송파문화원장은 고향 청양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지역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양 문화원이 교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하게 되었다. 양 문화원이 교류를 통해 문화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청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며 청양문화원에서도 송파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인사했다.

송파문화원 김현신 원장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늘 청양에 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청양과 송파는 모두 백제 문화권으로서 두 문화원이 각각 향토 문화를 발굴·개발하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등으로 공유해 가자”라고 말했다.



찬란하게 꽂피운 홍성문화원의 70년 역사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은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5월 24일 70주년 기념식 및 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홍성문화원은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문화원의 찬란한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문화

비전 선언문 낭독과 문화발전 유공자들을 표창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문화원은 1954년 설립하여 안상혁 초대 원장님을 시작으로 현재 제20대 유환동 원장님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4년 10월 현위치에 문화예술의 열매가 익어가는 터전으로 자리 잡아 대지 4,673m² 본관건물 1,995m²(약 603평)을 신축하여 230석의 공연장과 강의실 및 문화학교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교실로 사용하고, 2021년 10월 별관건물 522m²(약 158평)을 증축하여 세미나실과 공연장 대기실 및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여 문화원을 찾은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문화원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화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중심으로 거듭났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다양한 향토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 고유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성의 역사인물 만해 한용운선사 만해학교를 진행했으며, 만해 한용운 시낭송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 홍성의 역사인물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성년을 맞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의례로 성년식을 진행하여 전통의 맥을 잇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사라져가는 전통혼례의 원형을 복원하여 실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향토문화자료를 발굴하여 책자 발간, 홍성지역의 사투리달력을 제작해 군민들에게 배포하고, 많은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여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나눠주고 있다.

홍성문화원 7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 행사 를 넘어 지역문화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축시 낭송과 70년 동안 홍성문화원이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담아 상영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연예인 초청 공연과 함께 70주년을 축하하며 홍성군민이 모두 문화로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자암김구전국서예대전 학문과 예술정신 계승의 장



지난 5월에 개최한 제12회 자암김구전국서예대전이 오는 8월 전시회 및 시상식을 앞두고 있다.

예산문화원에서는 충청남도 예산 출신의 자암 김구 선생님의 드높은 학문과 예술정신을 후학들에게 계승하고 추모하기 위한 자암김구전국서예대전을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자암 김구는 안평대군 이용, 봉래 양사언, 한석봉과 함께 조선 전기 4대 명필에 꼽히는 서예가이자 문신이었으며, 말년에 고향 예산으로 돌아와 많은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올해의 영예스러운 장원은 문인화 부문으로 선정되었으며, 문인화 부분의 장원 수상은 제1회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대전의 수상작 역시 사실적인 자연의 소재를 단순화 시켜 해체하고 재구성하였으며 본 대전의 심사위원장은 “먹빛이나 구도, 구성 매우 뛰어났으며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시회는 예산문화원 이음창작소에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시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김종옥 원장은 “매년 초대작가를 배출하며 예산지역이 선비의 고장임을 표상하는 선인의 역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본 대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자랑스러운 자암 선생의 업적을 전국에 알리는 자리가 되고, 대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가족문화체험 해남 · 완도로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우리나라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에 맞닿아 있는 지형으로 동·서·남쪽 바다를 각 특색에 맞게 감상할 수 있다. 바다는 생업과 즐길 거리 그리고 역사의 현장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사람의 삶에도 맞닿아 있는 자연을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남쪽 땅끝 해남으로 떠났다.

태안문화원은 문화공간과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민들에게 자연과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문화체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상반기 가족문화체험 장소는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하고 아-

름다운 섬들이 펼쳐진 전라남도 해남과 완도이다. 역사문화기행은 군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많은 분께 참여기회를 드리기 위해 해남·완도 기행을 2회차로 계획했고(4월 12일~13일/4월 26일~27일) 탐방객들은 이른 아침 7시 30분에 모여 첫 번째 목적지인 진도로 향했다. 목포대교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도대교가 저 멀리 나타났다. 장장 4시간 이동 거리의 끝이 보이자, 조용하던 버스 안은 들뜸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다.



진도는 온난한 겨울 기온으로 땅이 얼지 않아 월동이 가능한 겨울대파가 특산물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한 대파로 끓인 진도소고기대파국으로 장거리의 피로를 풀었다.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 울돌목 해협으로 이동했다.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고 해남 방향으로 내려가다 본 바다의 빠른 물살이 선명해 기대감이 커졌다. 울돌목 스카이워크 기둥 쪽으로 흰 거품을 내며 빠르게 휘몰아치는 물살과 바다가 우는 듯한 응장하고 압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이순신 장군의 고심 결과가 승전으로 이어졌던 그날의 현장이 눈앞에 보여 벅차올랐다.

역사의 감동을 뒤로하고 40여 분을 달려 해남의 자랑, 세계문화유산 대홍사에 도착했다. 대홍사 일주문을 들어서자 바로 보이는 경관

에 탐방객들의 감탄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대홍사는 두륜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응장하나 고요하게 사찰을 품고 있었다. 두륜산 산등성이에는 부처님이 누워계시는 와불의 형상을 하고 있다. 탐방객들은 한참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연신 사진을 찍었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이 담긴 대홍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7점과 시도지정 문화재 6점 등이 소재한 역사·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라고 한다.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첫날의 마지막 코스인 해남 땅끝마을 전망대로 이동했다. 한반도 최남단, 땅끝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해 탐방객들은 모노레일을 타고 156m를 올라서남해안의 절경을 감상했고 전망대 꼭대기 층에서 땅끝을 마주하고 펼쳐진 여러 섬을 찾아내

는 재미를 경험했다. 또한, 전망대 매표 지점에서 20분 정도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면 땅끝 탑이 나오는데 탑을 등지고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은 가히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땅끝마을을 마지막으로 이른 아침부터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탐방객들은 숙소에서 각자 여독을 풀며 둘째 날을 기대했다.

둘째 날 첫 일정은 완도에 있는 장보고기념관으로 향했다. 장보고는 천여 년 전 당·신라·일본을 잇는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해상권을 장악했다. 기념관 1층에는 청해진이었던 장도 복원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장보고 대사의 업적도 설명되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미디어 전시가 진행돼 탐방객들의 흥미를 불렀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전시를 즐겼다. 장보고와 청해진에 대해 해설을 맡아주신 완도군 해설사님의 인솔에 따라 물이 빠진 갯벌 위를 걸으며 청해진에 들어섰다. 청해진의 목책에 대해 해설해 주셨는데, 약 천 년 전 장보고 시대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폭 80cm, 깊이 90cm 규모의 통나무를 촘촘히 세워 방어용, 접안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거로 추정했다. 탐방객들은 갯



벌에 박힌 천 년 된 소나무가 신기하고 놀라워서 주거나 받거나 담소를 나눴다. 봄이어도 온난한 남부 날씨로 덥고 땀이 났지만, 열심히 해설사님을 따르며 배움의 자세를 보여준 탐방객의 모습에 역사문화기행의 정석을 본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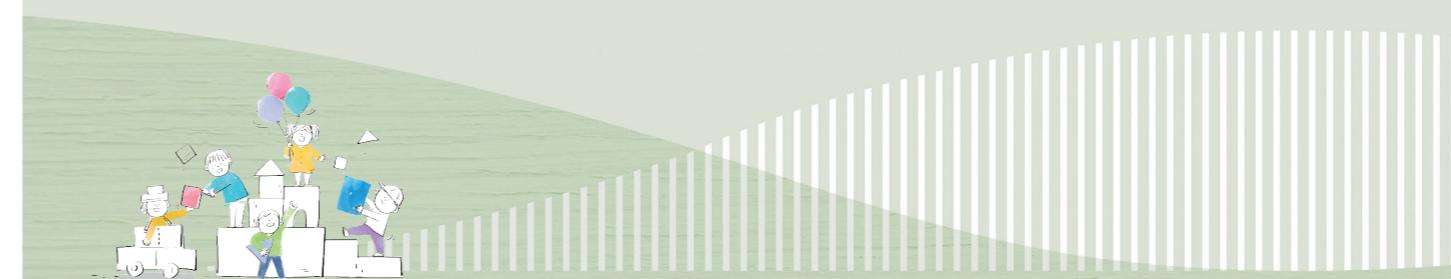
버스 안에서 잠시 땀을 식히며 마지막 탐방지인 완도수목원으로 향했다. 전남 유일 난대림 수목원인 이곳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열대 온실과 한옥구조로 이뤄진 산림박물관을 볼 수 있다. 따뜻한 햇살에 난대식물의 이파리들이 반짝반짝 빛났고 수목원 내에 자리한 큰 신학 저수지가 수목원 경관에 아름다움을 더했다.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다.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이런 기회 만들 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신다. 그러면 그간 노고가 보람으로 바뀐다. 자발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 사업으로 누군가에겐 활력이, 누군가에게 치유로 보답 된다는 것이 가족문화체험의 매력이자 역할이 아닐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 행선지는 어디로 떠날지 들뜬 고민을 해본다.

문화예술동아리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온양문화원
논산문화원
계룡문화원

당서예
진천산안문화원
문화원
문화원
문화원





‘아름다운 기억’ 『추억 스케치 동아리』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추억스케치 동아리는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지난 세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통해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분들은 매주 다양한 주제로 모여, 각자가 가진 다양한 추억을 그림으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따뜻한 모

습,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느낀 감동 등 다양한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냅니다.

추억스케치 회원분들은 종종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인쇄하기 위해 문화원에 방문할 때 가져오는 그림 속의 장면을 보면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소중한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느낀 감동적인 순간들이 즐거움 속에 정겨운 순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작품의 소재나 내용을 삶의 경험을 통해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추억스케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꾸준한 전시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적 활동에 기여하며, 지역민들에게 작품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억(어반) 스케치는 펜과 스케치북, 휴대용 수채물감, 물붓과 같은 가벼운 그림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취미활동 이상의 좋

은 경험을 선물해 줍니다. 회원분들께서 그림을 그리고 추억을 나누는 것을 보면 작은 그림 하나라도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면 작은 그림 하나하나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추억스케치 동아리가 순수한 아마추어의 모임에서 즐거움 속에 그림 솜씨도 점차 키워가는 의욕 넘치는 모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서화 동아리’ 반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 오르다.

고즈넉한 길가에 가로수에 벚꽃이 흰 눈처럼 내려있던 날 시서화 동아리 반 회원들이 벚꽃과 같은 하얀 미소를 한껏 지으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서화동아리반은 글씨(한글, 한문) 문인화, 동·서양화, 캘리그라피, 서각 등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동아리반을 구성하면서 회장을 중심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모인 자립형 동아리로 월요일 오전 유쾌한 수다로 시작해 토론하고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그 흔한 월요병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림에 문외한이었던 79세 설화님은 3년 동안 배운 실력을 증명하듯 수녀사 고목을 작지 않은 크기인 30호에 완성 중이시고 그 외 회원들도 자신만의 색깔로 성장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맘언니 격인 임향 회원님은 약 40여 분 버스를 타고 오심에도

언제나 제일 먼저 오셔서 수업 준비를 해 주시고 결석한 회원들의 안부까지 챙기는 정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온양문화원 시서화 동아리반을 구성하여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하루 3시간 하는 수업이 늘 부족합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풍경 좋은 날에는 자연으로 나가 현장스케치로 생동감 있는 그림도 그리고 다른 단체들의 작품도 관람하면서 나만의 내공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온양문화원 시서화 동아리 반은 상복도 아주 많아 충남문화원연합회 종합 대상을 받았으며 2023년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에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있 기에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기초부터 나만의 글씨, 그림을 쓰고 그릴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남



철우 회장님(백제서화공모대전 대상, 충남미술 대전 문인화 초대작가)의 인자한 지도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회장님은 지도함에 있어 방법만 제시하되 최대한 간섭과 터치는 하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하며 회원들의 작품을 함께 토론하며 관심을 가져주는 회원 모두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남철우회장님은 회원들이 작품 수준에 상관없이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여 자긍심과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단오명절을 맞아 회원들의 부채작 품을 전시하였고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온양문화원 원사 계단마다 작은 전시장을 만들어 지금도 회원들의 작품이 걸려 있으며 매번 새로운 작품으로 교체해가며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온양문화원 시서화 동아리 반은 이제 알에서 깨어나 높고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

포토스(Photos)

사진은 머리로 보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렌즈로 읽는다.

”

기억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사진은 또렷하다. 어느 곳이든, 어떤 순간이든.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하고 흘러간다. 사진은 명확하지 않은 기억과 감정의 순간을 찍는다. 카메라 안에는 시간의 활동이 담겨 있다. 셔터를 누른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기억과 상상, 현존과 부재, 드러나는 것과 숨겨져 있는 것과의 끝없는 소통이다.

포토스는 논산의 사진 동아리다. 2021년 문화원에 처음 사진반이 개설되었고, 2022년,

2023년까지 3년 동안 사진반이 운영되었다. 강사님은 손희선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다. 손희선 선생님은 평소 영상에 관심이 많으셨다. 학습자료, 교과서 제작, PT 자료 만들 때 지역의 많은 사진 자료가 필요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사진을 찍고 있다.

그동안 제49회 충남 사진대전 우수상, 제44회 영상의적 사진 콘테스트 동상, 제10회 대한민국 국제사진 페스티벌 코리아 포토부분 Max

상 및 2024년 올해에는 제42회 대한민국 사진 대전 특선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진 영상 발전을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사진전을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사진대전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문화원 수강생과 ‘포토스’ 사진 동아리를 만들어, 매월 두 번씩 사진을 찍고 있다. 그전까지 선생님은 촬영보다는 이론 중심 수업을 했다. 올해부터는 포토스 사진 동아리와 함께 출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을 단

순하게 찍는 게 아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보다는 ‘어떤 순간에 찍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순간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의미를 찾아, 셔터를 눌러야 한다.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존중해야 한다. 대상을 완벽하다고 느낄 정도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한다. 대상이 나에게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나를 흥미롭게 하는지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은 내 생각을 찍는 것이고,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생각의 사진’이 된다.



“보그 포토”

사진 동아리 ‘보그 포토’는 2022년 3월, 금암동에서 시행하는 문화강좌 사진반 수강생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친목 봉사 단체이다.

이후 두마면과 신도안면 그리고 엄사면 사진반까지 함께하면서, 화합 능력과 봉사 정신을 겸비한 성실한 분들의 뜻을 모은, 화기애애한 봉사 단체이다.

‘보그 포토’의 태동은 당시 문화강좌 사진반 강사였던 최용복 교수님의 조언과 도움이 작용했다. 사진 촬영 기능의 향상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적 자원 발굴과 각종 행사 사진 촬영 봉사를 통해, 계룡 사랑의 애향심 함양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 상호 간 친목도 도모하고 있다.

2022년도 활동으로는, 2022 세계 군 문화 액

스포 자원봉사 발대식 행사 사진 촬영. 2022 세계 군 문화 액스포 사진 촬영(계룡시 자원봉사 센터 연계). 사계 고택 촬영. 입암 저수지 촬영. 괴목정 숲속 도서관 이야기 행사 사진 촬영. 시민공연단체 거리 특별공연 사진 촬영. 신도안면 주관 회원 사진 작품 전시. 신도안면 주관 우리 마을 작은 음악회 촬영. 금암동 문화강좌 작품전시회 촬영. 하모사랑 정기 연주회 사진 및 영상 촬영. 촬영 사진을 활용한 2023년 달력 제작 배포.

2023년도 활동으로는, 2023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선정(2023. 2.14) 및 보고 완료. 두계 4.1 만세운동 행사 촬영 자료 제공(2023. 4.1). 사회복지의 날 행사 촬영 자료 제

공(2023. 9. 11). 군 문화 축제 행사 촬영 자료 제공(2023. 10. 6.~10. 10). 사회복지협의회 우수기관 견학 참여 및 사진 촬영(2023. 10. 19~20). 제1회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 사진 촬영 및 무료 사진 인화 제공(2023. 10. 28).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관 사진 촬영(2023. 11. 02). 계룡시자원봉사센터 주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사진 촬영 및 무료 인화 제공(2023. 12. 7). 금암동 주관 문화강좌 발표회 시, 회원 사진 작품 전시(2023. 12. 8).

2023년도 촬영 사진을 활용한 2024년 달력 제작 배포(2023. 12. 8). 2023년도 촬영 사진을 활용한 회원 사진첩(흔적 vol. 1) 제작(2023. 12. 8). ‘제1회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 행사에서 ‘우수동아리 시의회 의장상’ 수상(2023. 10. 28).

2024년도 현재까지의 활동으로는, 두계 4.1 만세운동 행사 촬영(2024. 3. 27).

사랑의 집 장수 사진 촬영(2024. 4. 26). 천마산 및 금바위 사진 촬영(2024. 4. 10). 충신 주계군 향례 촬영(2024. 4. 13). 은농재 야경 촬영(2024. 4. 30). 괴목정 촬영(2024. 5. 08). 문화원 총회, 전국 휘호대회, 성인식, 휘호대회 시상식 등의 촬영을 했고, 향후 활동 계획으로는, 문화원, 지역 행사 및 2024 계룡 군문화 축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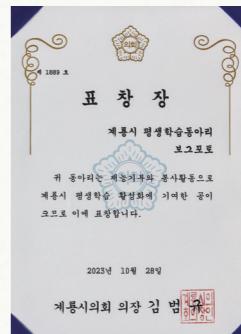
기념사진 촬영 및 인화 제공. 양로원 장수 사진 촬영. ‘2025년도 달력’ 발행 및 ‘2024 동아리 활동 사진첩’(흔적 vol. 2) 발간 등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동아리로 활동하려 한다.



사진첩(흔적 vol.1)



사진첩(흔적 vol.2)



우수동아리 시의회 의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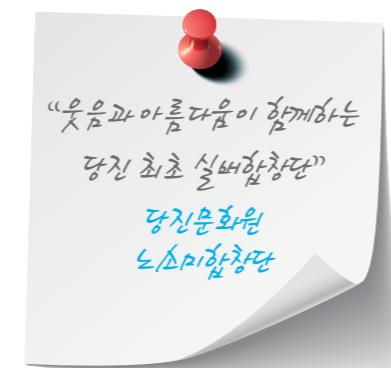
당진 최초의 실버합창단 '노소미합창단'

코로나19가 종식되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러 명이 모이는 모임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많은 동호회, 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했다. 특히 밀접 접촉, 비밀 위험 때문에 합창이나 색소폰,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팀은 그야말로 큰 타격을 받았다. 당진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노소미합창단도 2020년 초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에 들어갔었다.

노소미(老笑美) 합창단은 ‘웃음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합창단’이라는 의미로 2012년 4월 당진에서 최초 결성된 실버합창단이다.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문화활동을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노소미합창단은 ‘합창’이라는 매개를 통해 지역에 사시는 60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들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처음 합창단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문적인 음악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니었고 단원들의 목소리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야 하는 합창의 특성상 지도교육이 필요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창기부터 지휘를 맡고 있는 손지애 지휘자는 열정적으로 단원들을 이끌었고 그 결과 점차 단원들은 합창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어려운 가곡보다는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라든지 흘러간 옛 가요 등 잘 알려지고 친숙한 곡들을 편곡하여 노소미합창단만의 레퍼토리를 차차 늘려나갔다.

2013년부터는 대외적인 활동도 시작했다. 우



선 2013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인 ‘어르신문화사업’에 선정되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당진에서 열린 당진대합창제에 참가하였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당진대합창제에 참여하여 당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다른 합창단들과 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했다. 또한 남이홍장군문화제, 당진시 평생학습한마당, 당진생활문화예술제 등 지역의 각종 축제,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단원들은 다양한 무대 경험을 축적해나갔다.

노소미합창단이 활동하면서 얻은 큰 쾌거라면 2014년 서산에서 열린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상금 100만 원)을 수상한 것과 2016년 충청, 대전, 세종시 실버문화페스티벌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에서 톱10에 선정된 것을 들 수 있겠다.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던 합창단 활동이 이제는 단원들에게 잊지 못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단원들의 유대감은 더욱 끈끈하며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세대이기

에 서로에 대한 정이 넘친다.

왕성한 활동 중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노소미합창단은 위기를 맞이했다. 코로나로 인해 실버세대로 이루어진 합창단의 특성상 단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잠정 활동 중단에 들어간 것.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약 2년 간의 공백기를 갖고 2022년 가을경 노소미합창단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활동을 재개했던 날, 모두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예전과 같은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다시 모인 단원들은 당진문화원에서 실시한 ‘2022년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2월 3일 ‘사랑의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로 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자체 공연을 선보였다.

이제는 매주 화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궂은 날씨에도 노소미합창단의 단원들은 문화원에서 즐겁게 합창을 배우며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서천문화원 피아노반”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면, 서천문화원에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들려온다. 어릴 적 배우고 싶던 피아노에 대한 로망, 퇴직 후 새로운 취미, 악기 하나쯤은 다루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한 이유로 모인 수강생분들이지만, 모두 피아노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넘쳐난다. 늦깎이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계이름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수강생분들과 한 분씩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이 서천문화원의 월요일 아침을 밝혀준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피아노반은 입소문이 나서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서천문화원의 피아노반은 왕초보를 위한 강좌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강좌가 운영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처음 만져보는 사람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처음 강좌가 시작한 4월에는 동요 박자를 맞추는 것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복잡한 가요를 배우고 있다. 동요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곡을 배우는 동안 수강생분들의 피아노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건반에는 계이름 스티커가 알록달록 붙어있고, 피아노 이곳저곳에는 곡과 코드에 대한 메모가 붙어있다. 수강생분들의 피아노를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는지 바로 느낄 수 있다. 피아노 수

업이 끝나면 함께 식사 모임을 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피아노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피아노 구매에 대한 꿀팁을 얻기도 하고, 피아노 받침대와 스피커에 대한 정보도 오고 간다. 피아노 수업 중 강사님의 눈길이 닿지 않을 때는 수강생분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는 따스한 분위기라 뒤늦게 들어오신 수강생분들도 금방 적응하고 즐겁게 피아노를 배운다.

현재 피아노반은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연말발표회의 공연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다. 서천문화원의 연말발표회&전시회는 모든 문화강좌의 수강생분들이 참여하며,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과 기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연말발표회&전시회가 다가오면 강의시간이 지나도록 수업을 하고, 따로 모여서 연습도 할 만큼 많은 문화강좌가 진심을 다해 준비하는 행사이다. 피아노반도 연말발표회 공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연말발표회에 최대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주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연주자 사이의 합이 중요한 공연인 만큼 피아노반의 끈끈함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아직은 서툴고 더듬더듬 손끝을 움직이는 피아노반 수강생분들이지만, 연말발표회에 들려주실 아름다운 하모니가 벌써 기대가 된다.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 가곡 클래스

아름다운 가곡을 부르며 삶의 활력을 찾아서 활동하는 예산문화원 대표 동아리 가곡클래스를 소개합니다.

2018년 예산문화원 문화강좌로 가곡반이 신설되어 지금까지 남녀 구분 없이 아름다운 멜로디에 취해 함께 모여 음악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역에 가곡을 사랑하는 서

정적인 분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예산문화원 가곡클래스는 당진시충남합창단 단원이신 이윤수 테너의 지도 아래 시작되어 2023년 산청 전국항노화실버 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독일예술가곡연구회의 회원이신 황은영 소프라노가 지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곡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지금은 노래를 통해 동심으로 돌아가 삶의 활력을 찾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가곡클래스는 혼성합창단으로 알토, 소프라노, 남성파트 등 30명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곡클래스는 예산을 대표하는 가곡동아리로 해마다 예산노인요양원을 연 2회 방문하여 함께 노래하는 행복 배달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

역 행사 및 축제 등에서 25회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 축제인 예산장터 삽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추사김정희선생 전국휘호대회에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순화시키는 가곡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곡에 대한 사랑과 우정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는 예산문화원 가곡클래스를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초청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태안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아리 Shall We Dance

태안문화원에 댄스스포츠 강좌가 개설된 이래, 20여 명 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시작할 때는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였고 댄스스포츠 왕초보였는데, 어느덧 60대가 되었고 이제는 댄스스포츠 중급 수준이 되었습니다.

태안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아리 명칭은 “Shall we dance”입니다. “우리 춤을 출까요”라는 의미기도 하지만, 영화 “쉘 위 댄스”에서처럼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중년의 삶에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크게 라틴 댄스와 모던 댄스라

고도 하는 스텐더드 댄스로 구분됩니다. 세부 종목으로는 라틴 댄스에 자이브,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5개 종목이 있고, 스텐더드 댄스에 월츠, 탱고, 비엔나왈츠, 쿼 스텝, 폭스 트롯 5개 종목이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세계인 누구나 공통된 형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춤으로, 남녀가 한 쌍을 이루어 음악의 리듬에 맞추는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예술의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댄스스포츠는 춤과 음악, 스포츠가 결합한 종합예술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요즘 댄스스포츠가 대학



의 교양 과목과 생활체육으로 대학생과 사회인들의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댄스스포츠가 대중화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음악에 맞춰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교 활동을 통한 사회적 건강에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안문화원 댄스스포츠 중급반 동아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으며, 대회 출전 등 강화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 2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주 꼬박꼬박 만나고 있으며,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연습을 하는 회원들의 열정과 항상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동아리 회원들

의 실력은 일취월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태안군 체육회 댄스스포츠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2023년)에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댄스스포츠 단체전(포메이션)에 출전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4위를 하였으며, 올해(2024년)도 같은 대회에 출전하여 5위를 하였습니다. 태안군이 다른 시(市)에 비하여 인구가 현저히 적은 군(郡)임을 감안할 때 아주 우수한 성적이라고 자부할만합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몇 달 동안 포메이션을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를 받을 때는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성취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작년부터 태안문화원에 댄스스포츠 초



급반이 추가로 개설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앞으로 초급반 회원들도 중급반 동아리에 합류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혼자만 잘 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와 서로 믿고 배려해야만 춤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때로는 스텝이 엉켜 상대방의 발을 밟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댄스스포츠를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연령 60대인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정열로 댄스스포츠를 즐기며,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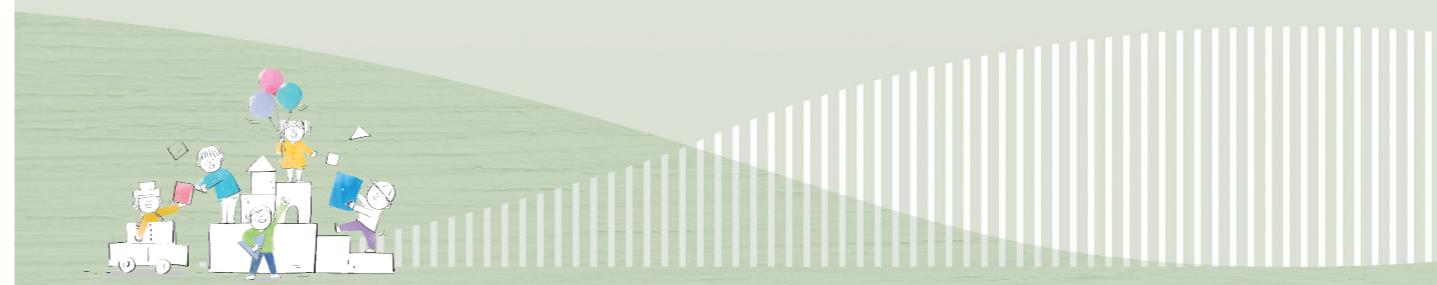
앞으로도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면서 오랫동안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기력함을 느끼시는 분이나 생활의 활력을 찾고 싶은 분은 댄스스포츠를 시작해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춤과 음악, 스포츠가 융합된 댄스스포츠를 배워보고 싶은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태안문화원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태안문화원 댄스스포츠 동아리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풍경에의 유혹

천안시동남구문화원
공주문화원
보령문화원
온양문화원
서산문화원
논산문화원

당진문화원
금산문화원
서천문화원
홍성문화원
태안문화원





태조산 & 무장애나눔길



6월, 충남문화원연합회에서 ‘충남문화 30호’ 발간 계획이 문화원으로 전달되었다. 이전에, 천안의 ‘광덕사 설경’에 대한 원고를 충남문화에 게재한 적이 있었다. 그렇기에 필자는 다시 한번 풍경에의 유혹 분야에 꼭 공유하고 싶은 장소를 평상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충남문화 상반기 원고는 먼저, 작성해 보겠다고 동료들에게 선포 아닌 선포를 하게 되었다.

하절기의 진초록의 아름다운 유혹이 담긴 풍경 속, 천안 유량동에 위치한 태조산의 전경과, 작년 4월쯤에 완공된 산책길인 무장애나눔길을 안내해 보려 한다.

태조산은 여타 다른 산과는 다르게, 주변이 다채로운 공간들이 집약된 천안 시민들을 위한 장소라고 칭할 수 있겠다.

첫째로는 태조산 등산로가 잘 정비된 등산인들을 위한 공간과 그리고,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어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방문하여 산림이 우거진 숲과 넓은 광장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있다. 또한, 영유아수준의 아이들을 위한 숲체험원,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산림레포츠 짚라인과, 짚코스터,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데크로 구성된 산책길인 무장애나눔길까지..

내비게이션에 태조산이라는 세 글자만 검색하고, 이곳에 도착한다면 이 모든 여가 활동과 초록초록한 산림욕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아니, 하루가 모자랄 수도 있다.

먼저, 1년 전에 완공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무장애나눔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천안도시공사는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민 누구나 자연을 느끼면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총 1.4km, 노폭 2m에 이르는 무장애나눔길 산책로를 조성했다.

무장애나눔길은 누구나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사도 8% 이하의 산책로로 만들어져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 체험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22년도 4월 태조산 무장애나눔길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많은 탐방객의 사랑에 힘입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23년 4월 28일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입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지역민들에게 산책로의 만족도와 호응이 좋아, 태조산 주변을 찾는 시민들이 이전보다 매우 많아졌다고 한다.

다시 돌아와, 필자의 눈으로 태조산의 풍경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근무를 하던 중, 원장님의 허락으로 오후 2시 쯤 충남문화 원고 게재를 위한 ‘등산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조기퇴근을 하였다. 집에서 환복을 하고, 밖에 나와 걸어가니 태조산주차장 까지 4km의 이동거리가 소요되었다. 이내 도착하니,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들로 빼곡한 모습이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을 향해 출발하였다. 등산로 초입에서 정상석까지는 40분이면 도착(필자의 체력 기준)하였고,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에서는 천안시내 전경이 내려다보였다.

그리고 태조산은 성거산이라는 또 다른 산과 산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시 내려가다가 다른 길로 향하면, 대머리봉(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음)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다. 그곳은 정상석이 위치한 태조봉보다 고도는 조금 낮지만, 탁 트인 전망으로 정상보다 시내의 전경이

드넓게 보이기 때문에 정상뷰라는 차각을 일으킬 수 있다.

대머리봉에서 필자는 이제 완전한 하산을 준비하였고, 내려가는 길에, 레포츠단지를 가로질러 무장애나눔길에 도착하였다. 물론 하산하는 방향이었기에, 필자가 도래한 곳은 종묘지 점이었다. 산의 능선을 따라 조성한 데크길은 지그재그 방식으로 일정한 낮은 경사각도로 조성이 된 듯 보였다. 하산을 하는 내내, 그들의 연속이라 하산길은 시원한 편이었다. 어르신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에 인사도 건네 보았다. 무장애나눔길의 시공 상태는 깔끔하였고,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물론 전주보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탓도 있으리라...

총 1.4km 거리의 무장애나눔길은 어르신들의 산책 코스로 안성맞춤이었다.

어떤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4명은 연 1회 이상 등산을 한다고 한다. 태조산의 등산길과, 그늘진 무장애나눔길 하산 조합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매력적인 풍경을 담아낼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조심스레 유혹해 본다.

당장 천안시의 아름다운 풍경들로 가득한 태조산으로 떠나보라고 말이다.



따뜻하게 새로 난 충청감영길

저는 충청감영길을 좋아합니다. 이 길은 옛 관아의 대로로 충청감영이 있던 지금의 공주사 대부분에서 대통교를 거쳐 옛 공주목관아 터의 객사였던 중동초등학교 앞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감영길에선 작은 책방에서 책 한 권을 살 수도 있고,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길손들을 눈여겨보고, 갤러리에서 새로운 전시회 관람과 작가들의 작업실 구경을 하며 놀 수도 있습니다. 근처 잠자리가 놀다 간 골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서극장 골목을 거쳐

대통교쪽으로 나가거나, 제민천을 따라 걷는 코스도 좋습니다.

그 코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중학동사무소 앞에선 ‘살피마’라는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으면 공주 근대의 이야기를 간직한 공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살피마는 지역 작가가 만든 말 모양의 나무 의자로 감영길의 상징이에요. 예전 충청감영의 관찰사가 말을 타고 돌며 백성들을 살피시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든 작품이라 합니다. 중학동 사무소 옆으로 공화양복점, 봉황서림, 사대부

고 등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고도 공주의 시간 속에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주는 백제의 고도였고, 조선 시대엔 감영이 있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멀지 않은 근대엔 충남도청 소재지였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 이 길이지요. 기념품을 파는 상점과 다양한 체험 공방을 지나고 충청감영의 정문인 포정사의 2층 문루에 올라 감영길을 바라봅니다.

밤 풍경 또한 낯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근사합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들었을 은은한 조명은 편안하고 따스한 빛을냅니다. 그 문루에 저녁이 내려앉는 것을 사대부고 뒤의 봉황산은 매일 저만치에 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영길에 있는 청년들의 사무실 ‘퍼즐랩’에서 진행한 공주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공주 밖의 청년들과

시니어들이 공주에서 머물며 로컬의 일상을 온전히 느껴보는 여행입니다.

저희는 로컬 창업에 관심 있는 참가자분들께 ‘루치아의 뜰’ 이야기를 들려주고, 홍차 티클래스를 진행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익숙한 공간을 만나고 거기에 서 새로운 체험을 하다 보면 공주라는 도시가 차츰 편안한 곳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영길에서는 새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로 한쪽에선 산책하기 좋게 인도를 넓히고, 수형이 멋진 소나무와 가을꽃을 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비어 있던 가게가 채워지고 주인이 바뀐 공간들은 새로 짓거나 개축을 하며 오픈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랜 시간을 간직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날마다 제가 만나는 이 길과 공간들이 저마다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꿈꿉니다.



하늘을 날다 성주산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泰山歌(태산가) 양사언(楊士彦)

泰山雖高是亦山(태산수고시역산) –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끼이로다
登登不已有何難(등등불이유난) –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 만은
世人不肯勞身力(세인불궁노신력) –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只道山高不可攀(지도산고불가반) – 끼이만 높다 하더라

학창 시절 배운 태산가(泰山歌)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더구나 시가 탄생한 배경도 기억에 없다. 다만 시간이 흘러 다시 읽었을 때 서러운 서자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 준 시이다.

때로 빛아래 펼쳐지는 아찔한 풍경을 바라보며 되뇌는 시이기도 하다.

중국 쪽에서 뺑차를 타고 올라가 백두산 천지연을 보았다. 그리고 백두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시가 잠시 떠올랐다. 대한민국 최정상에 섰다는 감격의 마음도 뒤엉기면서 감사의 노래가 절로 나왔다.

동유럽을 여행하며 알프스의 웅장한 모습에 자연의 신비로움과 압도 당하는 거대한 힘을

느꼈다. 더 어마어마한 산들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의 베틱리스트이다.

보령 옥마산 정상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있다.

이곳에 올라서면 다양한 보령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사방으로 다른 풍경과 색들이 사람의 눈을 밝고 화 트이게 만들어 준다.

이륙장에 서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면바다에 떠 있는 무인도와 외연도까지 보인다. 그리고 보령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니던 곳을 명확하게 또는 어림짐작으로 찾아보기도 한다. 숨은 그림을 찾듯이 즐긴다.

다시 방향을 바꾸면 성주산 줄기가 겹겹이 보인다. 일출과 일몰을 감상해도 좋은 곳이다. 사계절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시내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두 시간 투자를 하면 빛아래 세상을 둘 수 있다.

보령의 명소로서 시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정상까지 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 12대는 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다. 그리고 유모차도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바닥도 잘 손질이 되어 있다.

다만 오르는 길이 구비 진 길이 많으니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된다. 오르면서 아찔한 풍경을 감상하면 된다. 아니면 일출 전망대에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갈 수 있다.

화장실과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커피 한 잔과 간식거리를 들고 올라와 즐기며 감상해도 좋다. 다만 주의할 것은 쓰레기 처리는 잘해야 한다. 우리만 쓸 것이 아닌 후손 대대로 아끼고 보살펴야 할 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랐으니 하늘을 날아야 하지 않을까. 보령 옥마산 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 마니아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곳이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대회도 열리고 있다.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포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활공을 같이할 조종사를 만난다. 전문가가 아니면 혼자서는 이륙할 수 없다. 초보인 시민들은 조종을 안전하게 잘하는 조종사와 함께 이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되는 차를 타고 옥마산 활공장으로 조종사와 함께 이동한다. 옥마산 정상에 서 조종사가 안전을 위해 제공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안전모를 쓴다.

패러글라이딩은 캐노피와 산줄 안전벨트가 든든해야 한다. 조종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알맞지 않으면 비행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고 살짝 발이 떨어지면 드디어 하늘을 나는 것이다. 날개가 달렸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 조종사에 따라 중간쯤에 스파이럴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고 땅에 발이 닿는 순간 멀미를 느낀다.

그리고 착륙장에 안전하게 착지하면 하늘을 잘 날은 것이다. 잠시 쉬고 정리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신청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짜릿한 체험과 보령의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곳이다. 친구, 연인, 가족, 동호회원들과 함께 갈 수 있다.

보령은 언제든 팔 벌려 환영한다.

높은 곳에 서면 겸손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꿈을 향한 다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망대를 좋아한다. 그냥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산 아래에서 복작이며 살던 마음을 다 풀어놓고 간다.



아산 이충무공 묘소

흔히 이순신장군의 무덤이 아산 현충사에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 현충사에는 이순신(1545~1598)장군이 살았던 집과 장군의 영혼을 모신 사당이 있고 실제 장군이 묻힌 무덤은 현충사부터 9km 떨어진 아산시 읍봉면 어라산에 있다.

이순신장군 묘로 가는 길은 자동차 전용도로 읍봉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들어서면 작은 시골 학교를 지나는데 웬지 정겹고 옛 추억이 절로 생각나게 한다.

묘소 주차장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산세에 깨끗한 공기가 감돌아 자연스레 힐링이 된다.

잘 정비된 도로를 천천히 걸어 올라가다 보면 잘 자란 멋진 소나무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산공기를 들이마시면 상쾌한 솔내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무덤 주변에는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는 상석과 혼이 놀다 간다는 혼유석, 향로석이 있으며 동자상 1쌍, 석상 1쌍, 망주석 1쌍, 석상



1쌍, 문인석 1쌍, 광명등, 묘비석이 있다.

무덤 앞에는 정조 18년(1794)에 세워진 어제비와 비각이 있다.

이충무공 묘소는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2호로 지정되었고 1973년 7월 19일부터 충무공 종손의 동의를 얻어 현충사관리소에서 묘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묘는 충무공과 배위(配位)인 상주방씨의 합장묘이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왜적의 조총을 맞고 전사하였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이 끝난 후 이순신의 시신은 남해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당시 통제영이 있던 고금도로 운구되었다. 고금도에서 며칠간 수습절차를 거쳐 가족들에 의해 육로로 운구되어 12월경 아산

본가에 안치되었다. 장례는 이듬해인 1599년 2월 11일 치르고 발인하여 아산군 읍봉면 금성산에 안장하였다.

1614년(광해군 6년)에 지금의 어라산의 덕수이씨 선산으로 이장하였으며 묘는 원형분이며 봉분 밑에는 호석을 둘렀다. 호석에는 전서로 이순신과 부인 상주방씨가 합장되었다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해병대전우회 충청남도연합회 아산시지회에서는 해마다 이순신장군 서거일 (음력 11월 19일)을 맞아 국가안보 질서 및 아산시와 해병대 발전을 기원하며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추모하는 뜻으로 장군의 기일에 기신묘제를 올리고 있다.

신비의 섬 간월도



간월암 전경



간월암 관음전, 종각



간월암 산신각



간월암 사찰나무



스카이워크



석화찜

굴밥

서산시 부석면에 위치한 간월도는 서해바다 천수만의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1979년 8월에 시작된 물막이 공사와 1984년에 완공된 서산 A지구 방조제 간척사업으로 인해, 원래 섬이었던 간월도는 육지와 연결되었다. 현재는 간월암만이 밀물 때에 섬으로 변하여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행정구역 상 간월도는 서산시 부석면을 중심으로 홍성군 서부면과 태안군 남면과 인접해 있다. 방조제 간척 사업으로 섬에서 육지로 변한 간월도는 관광지로 활성화되었으며, 간월암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많은 식당과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식당들은 생굴과 어리굴 것을 비롯해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간월도는 섬에서 육지로, 시골 마을에서 유명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방문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 되었다.

간월암의 신비한 모습, 즉 길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만조 시에는 섬에 갇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간월암을 방문할 때는 입구에 세워진 밀물 안내판을 잘 확인해야 한다.

천수만을 바라보는 간월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바위섬 간월암은 조선 초 무학대사가 바다에 비친 환한 달빛을 보고 깨우침을 얻은 곳으로, 간월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간월암은 간조 시에는 바닷물이 빠져 간월도와 연결되고, 만조 시에는 바닷물이 밀려와 섬으로 변

하는 신비한 현상을 보여준다.

간월암은 일몰과 수중월로도 유명하다. 해가 바다로 떨어지는 장엄한 석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우며, 간월암 너머로 주홍빛 하늘과 바다를 감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느낌을 준다. 간월도 해변 광장에 새롭게 조성된 스카이 워크에서 간월암의 모습을 보면 더욱 황홀하게 즐길 수 있다.

간월도 해변 광장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물 기념탑인 ‘어리굴젓 기념탑’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정월 보름날 굴 채취가 잘 되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며 ‘굴부르기군왕제’를 지낸다. 간월도 굴은 남해안 굴과 달리 24시간 바닷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6시

간은 바다에서, 6시간은 햇빛을 받아 성장한다. 이로 인해 굴의 물 날개가 잘 발달하고 향이 진하며 타우린 함량이 높아 영양이 풍부하다. 간월도 생굴 석화는 그 맛이 유명하여 ‘깜장굴’이라고도 불린다. 간월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굴은 어리굴젓과 영양굴밥의 재료로 쓰이며,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굴회와 석화찜도 별미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물이 들고나면서 길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신비로운 사찰 간월암과 맛있는 굴로 눈과 입이 황홀해지는 간월도로 여행을 떠나보자.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땅에 뜯 별을 찾아 김관식시비

땅에도 별이 뜬다. 땅에 뜬 별은 다름 아닌 시인들이다. 세사(世事)에 초연히 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종착지가 없는 여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

● 호연지기의 시중 처사

김관식 시인은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육당 최남선 선생과 위당 정인보 선생들을 찾아 사사하였다.

천재들은 오래전에 정해진 틀 속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김관식 시인도 틀 속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작록(爵祿)도 싫으니 산에 가 살래.’(「거산호(居山好)」)라고 노래하던 그는 잠깐씩 교원과 언론인으로서 직장생활도 하였지만 그 생애의 대부분을 시중처사(市中處士)로 살았다.

세상은 그를 안기에 품어 너무 좁았다. 그의



뛰어난 시경과 호연지기를 감당할 만한 세상이 아니었고, 그럴 인물이 없었다. 그는 명함에 오직 <대한민국 김관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 까닭을 우리나라가 좁아서 그랬다고 하나, 어디에도 매이고 싶지 않은 호연(浩然)함이 아니었을까.

손윗 동서이며 문단에 자신을 추천한 서정주 시인을 제외하고는 아무개 군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두고 안하무인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였던 이근 배 시인의 해석은,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조선의 왕자처럼) 군(君)이라 칭하였다고 했다. 어쨌든 그는 천상병 시인과 함께 문단의 기인(奇人)으로 불렸다.

그는 호방한 성격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지사적 삶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말년의 몇몇 시에서는 가난 때문에 자녀들을 잘 건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여과 없이 토로하기도 하였다.



● 하늘에 별로 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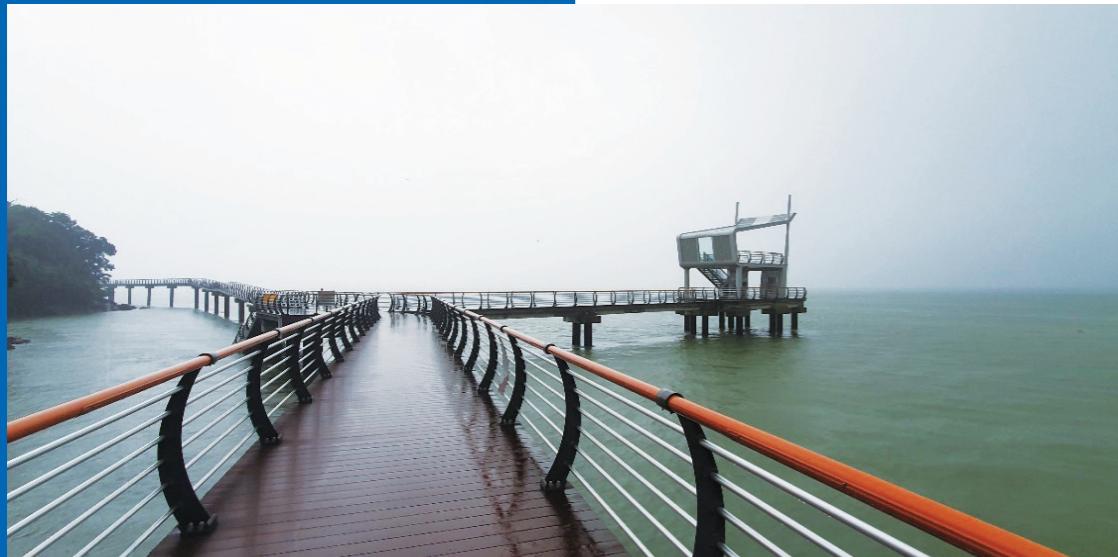
김관식 시인은 이 세상에 살기가 버거웠던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열렬히 동경하였던가. 서른일곱의 젊은 나이에 그가 태어나 자란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로 이사를 했다(1970년). ‘대한민국 김관식’이 영면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쳐였다. 다만 한 가지 누워서도 그가 뛰놀던 들판과 냇가가 한눈에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라는 것은 다행이었다.

사람이 살아서의 평가보다 죽어서의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의 요절을 안타까워하였고, 창작과비평사에는 그의 시를 모아 김관식 시전집 『다시 曠野(광야)에』를 펴냈다. 그의 시는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현재 10쇄를 발행했다.

또 여러 곳에 시비를 세워 시인과 그의 문학을 기리고 있다. 그의 모교인 강경상업학교 교정에 처음 시비가 세워진 이후에 대전보문산공원, 논산시민운동장에 시비가 세워졌다. 그러다가 2009년에 논산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그의 무덤을 크게 정비하고 그 옆에 네 번째의 시비를 세웠다.

그는 비록 살아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사후에 이토록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의 시와 삶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아서보다 죽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관광포구'로 발돋움 하다 한진포구 해안산책로 개통

당진은 바다와 인접해 있는 지형적 특성상 과거 포구가 발달했으며 이를 통한 어업이 성행하고 여객선을 이용한 인적 교류 및 물자이동 등이 활발했었다. 하지만 간척사업과 지역 발전에 따른 도로 개통, 공장 입주 또 서해대교가 놓이면서 포구의 역할은 현저히 적어졌다.

한진포구는 당진의 대표적인 포구 중 하나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위치해 있다. 즉 당진의 북동쪽, 서해대교 위쪽, 바다 건너 평택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예로부터 중국과 교역을 했던 곳이자 아산방조제가 생기기 전까지 인천항으로 가는 여객선이 운항되었다고 한다. 승어, 삼치, 준치 등이 많이 잡히고 김양식이 이뤄졌으며 한때는 한진장이 5일장으로 열리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현재의 한진포구는 소규모

어업만이 이뤄지고 있으며 인근에 횟집들이 운영 중으로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해 뜨고 지는 당진 왜목마을'과 함께 '서해대교에 걸린 일출'을 볼 수 있는 일출명소이자 매년 5월경에는 '한진포구바지락갯벌체험축제'를 개최하는 등 이제는 '관광포구'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근 '관광포구' 한진포구에 친수연안 해안산책로(이하 한진포구 해안산책로)가 완공되어 전면 개방되었다. 2017년 한진포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9년 1차로 215m가 준공되었고 올해 초 나머지 526m 구간이 준공되면서 현재 입소문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진포구를 찾고 있다. 하반기에는 야간경관조명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멋진 서해 밤바다 풍경을 보며 산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포구 해안산책로는 한진포구에서 고대지구 근린공원까지 이어지며 총 길이는 741m에 이른다. 한진포구 주차장에서 바다를 보고 왼쪽으로 가면 방파제가 나오고 그 옆으로 100m 가량 들어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안산책로가 펼쳐진다. 산책로에는 당진시 우수경관자원 서해대교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한진포구에 관한 옛 기록, 관련된 고시(古詩), 2020년 당진시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진풍어당제, 포구에서 건너다보이는 영웅바위,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되었던 한진포구 등에 관한 안내판이 있어 한진포구의 유래, 역사, 전설에 대해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해안산책로 중간에는 2019년에 1차 완공되어 미리 개방된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아산만 서해바다는 물론 웅장한 서해대교와 행담도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전망대를 찾은 사람들을 반기는 여러 마리 갈매기의 비행과 지저귐은 해안산책로 관람의 묘미 중 하나.

전망대를 나오면 올해 3월 2차 개방된 해안산책로가 고대지구 근린공원까지 이어진다. 이 산책로의 끝에도 전망대형 데크와 조형물이 설치

되었는데 마치 돛단배의 형상을 하고 있어 한진포구의 운치를 더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향후 야간경관조명까지 더해지면 한진포구는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이렇게 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한진포구에서 볼 수 있는 영웅바위 관련 전설을 당진 신평면지에서 일부 발췌하여 옮겨본다. 영웅바위는 2020년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영웅바위는 신평면 매산리에 속한 무인도
인데 실제 바다 위치는 한진 앞바다 건너 평
태항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 영웅바
위에 관한 지명전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소개한다. 임진왜란 때, 왜적이 아산
만으로 침입하였는데 영웅바위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바위 모습을 조선 수군을 지휘하는
장수의 모습으로, 주변의 작은 바위는 군졸
로 변모하여 이를 본 왜적들이 대경실색하여
도망갔다고 한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이 알려
지자 조정에서는 이 바위의 공을 높이 평가하
여 바위의 이름을 '영웅바위'라고 칭하고 정3
품의 관직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 한진포구 찾아오는 길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95-14

칠군송 (七君松)



칠군송(七君松)은 제원면 동곡리 (새뱅이마을)에 있다. 조선말기 송내희(宋來熙, 1891~1867년, 자는 자칠(子七), 호는 금곡(錦谷))가 대사헌(大司憲), 찬선(贊善)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이곳에 우거(寓居)하여 후진을 양성할 때 인접한 진산, 회덕, 옥천, 무주, 용담, 영동의 6개군과 금산군수가 송내희에게 세배를 오면 동네 입구에서 말을 내려 이 소나무에 매고서 동네에 들어가 세배를 했다고 해서 칠군송이라 불렸다고 한다.



聳壑百尺長 (용학백척장)
勁髯籠炯霧 (경염룡형무)
自動天機處 (자동천기처)
四時黛色蒼 (사시대색창)
高節傲雪霜 (고절오설상)
風過奏笙簧 (풍과주생황)



架短夔公宅 (가단기공택)
風歸山寂寂 (풍귀산적적)
撫孤元亮隣 (무고원량린)
惟有老龍鱗 (유유노룡린)

조심스레 공의 집 가까이 건너서
바람 돌아가는 산 외롭고 쓸쓸하네
외로움을 어루만질 최고의 이웃은
생각해보니 늙은 용의 비늘이 있었구나

– 박초석(朴蕉石) –

솟아오른 골짜기처럼 백척으로 길고
굳센 구렛나릇 아름다운 색 바구니처럼 안개 속에도 빛나
스스로 하늘의 조화를 품은 곳을 만드네
한 해 내내 그 빛깔은 푸른 눈썹 같고
높은 절개는 눈과 서릿발 추위에도 굽하지 않으며
바람 지나가니 생황의 소리 들려준다네

– 금곡(錦谷) 송내희(宋來熙) –



붉은 동백꽃과 낙조가 아름다운 곳, 마량리 동백나무숲

우리나라에서 동백나무가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식물분포학적 가치가 높은 곳.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번성과 평안을 기원하는 장소라는 문화적 가치도 높은 곳!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1965년 4월에 지정·관리되고 있는 서천의 9경 중 하나인 “마량리 동백나무숲”이다.

전설에 의하면 약 500년 전에 마량진 수군첨사가 바다 위에 수많은 꽃이 펴있는 꿈을 꾸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그 꽃을 가져다 잘 가꾸면 어부들이 안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마을도 번성할 것이라 하였다. 수군첨사는 노인의 말을 따라 이곳에 동백꽃을 심었고, 지금의 동백나무 숲이 되었다고 한다.

차나무과에 속하는 동백나무는 키가 7미터까

지 자라는 난대성 상록활엽수이지만 이곳의 동백나무는 서해안의 해풍을 오랜 시간 견디며 적응했기 때문에 키가 2미터 내외로 작은 편이다. 그리고 줄기가 아래에서 2~3개로 갈라지면서 결가지가 발달한 동근 수형을 갖추고 있다. 동백꽃은 붉은색으로 늦겨울에 피기 시작하여 늦봄까지 꽂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데, 꽂이 피는 시기는 보통 1월에서 4월이며, 특히 2월에서 3월 사이에 장관을 이룬다.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바닷가의 낮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백나무들이 우거진 숲사이 돌계단을 오르면 언덕마루 전망 좋은 곳에 있는 중층누각 동백정이 보인다. 이곳에서 동해바다 같은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서해바

다는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때문에 동백정 앞바다에 떠 있는 솔섬과 어우러진 서해바다에 황혼이 물드는 풍경을 보기 위해 사진 작가들 뿐만 아니라 일몰감상을 위해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

이렇듯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더해주기 위해 구. 서천화력발전소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의 하나였던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하여 동백나무숲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

동백정 바로 옆의 조금 낮은 곳에는 당집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1월이 되면 동백나무 숲에 있는 마량리 당집에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빌었는데, 그 풍습이 지금의 마량리 당제로 이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설날 그믐날에 이곳 동백나무 숲에 자리한 당집에 올라 선창제를 지내는 것을 시작으로 정월 초사흘날에는 편탕제, 당굿, 마당제, 대내림, 용왕제, 샘제 등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초여드렛날이나 초아흐렛날 중 좋은 날을 가려서 거리제(장승제)를 지낸다. 마량리의 당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그동안 당제가 해를 거르거나, 더욱이 충단된 적은 없다. 그래서인지 마량리 사람들만큼은 오랜 세월 어떤 해나 사고도 겪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고, 이것이 모두 마량리 서낭님의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백나무숲의 풍광과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



이 모인 이곳 마량리 동백나무숲을 방문한다면 동백꽃이 만발하게 필 3월 무렵을 권해본다. 이 때는 마량진항에서 어업인들이 잡은 주꾸미를 소재로 서천동백꽃주꾸미축제가 개최되어 주꾸미잡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주꾸미 전문점 서산회관의 주꾸미 철판볶음과 샤브샤브 및 우럭탕, 꽃게탕 등 다양한 산지 해산물 메뉴로 입맛을 돋울 수도 있겠다. 더불어 주변의 서천해양글램핑, 춘장대 해수욕장, 비인면 갯벌체험·도예체험 등 바닷가의 관광·체험지들이 밀집해 있어 이와 연계한 여행도 좋을 듯하다.

동백꽃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범한 꽃나무이다. 하지만 겨울의 추위와 상관없이 견고하게 자라는 그 특성으로 인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사랑과 애정의 의미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꽃나무이다. 1월~4월, 동백꽃이 필 무렵 익숙하고 평범하지만 아름답고 붉은 동백꽃과 낙조의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여행을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마	량	리					
			동	백	나	무	숲

서해안의 명물, 홍성 스카이 타워

천수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감상하는
65m 높이의 전망대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홍성 스카이 타워가 2024년 5월 14일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다. 총 높이 65m의 철강 구조물로 촛대에 촛불이 켜진 모습을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홍성 스카이 타워는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라는 타이틀을 자랑한다.

아슬이슬한 스릴과 함께 펼쳐지는 탁 트인 파노라마 경관

홍성 스카이 타워의 백미는 바로 상층부에 조성된 66m 길이의 스카이 워크다. 투명 유리 바닥으로 이루어진 스카이 워크를 걸으며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탁 트인 서해안의 일몰을 감상하며 스카이워크를 거닐다 보면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채로운 조명으로 빛나는 야간 풍경

홍성 스카이 타워는 밤에도 눈부신 매력을 발산한다. 256가지 색상의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야간 풍경은 마치 별빛이 지표면에 쏟아진 듯한 환상적인 광경을 선사하고, 낭만적인 레이트 코스나 야경 감상 명소로도 최적이며, 특히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폽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성 스카이 타워는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방문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거나, 스카이워크에서 스릴 넘치는 체험을 즐기고, 야경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영화 <피끓는 청춘> 촬영지

스카이 타워가 서 있는 곳은 ‘속동 전망대’가 있는 곳이다. 이 전망대는 홍성 해안의 명소로 어사 포구와 궁리 중간의 임해관광 도로변 바닷가에 조성됐다. 전망대 옆에는 푸른 해송림이 바다와 어우러져 있고, 전망대 앞의 모섬까지는 언제나 섬에 오를 수 있도록 나무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바닷가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종석, 박보영 주연의 영화 ‘피끓는 청춘’ 중에서 ‘봄 소풍 장기자랑 장면’ 등이 촬영된 곳이어서 많은 영화팬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놀 궁리 해상파크’ 및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네트어드벤처’ 등도 인근에 마련되어 있어 바다와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홍성 스카이 타워 방문 정보

- 위치 : 충남 홍성군 남당항로 689
- 운영시간 :
 - 동절기 (9월~5월) 09:00~18:00
(입장시간 09:30~17:30)
 - 하절기 (6월~8월) 09:00~20:00
(입장 시간 09:30~19:3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입장료 : 3,000원
- 문의: 041-635-180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태안의 ‘эм플레이파크’



매년 230만 명 이상의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태안은 2023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되었다. 태안은 반려동물 동반 전용 해수욕장 운영, 반려견 요가 프로그램과 관광지 연계 동반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태안에 위치한 엠플레이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엠플레이파크 내에는 무인 상점이 있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무인 라면자판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 또한, HP.MP ZONE 카페는 플랜테리어와 각종 수조들이 어우러진 독특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며, 스마트카페답게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 결제를 하면 로봇이 서빙을 해준다. 모든 태블릿에는 주문, 인터넷, 게임 등이 탑재되어 있어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1인 1음료를 주문하면 VR 체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도 제공되어 엠플레이파크 내 PLAY ZONE에서 VR 레이싱 게임, 모션 게임 등 다양한 VR 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2024년 6월 30일에 영업을 종료하였다.

윈디힐 곳곳에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각기 다른 테마와 배경으로 꾸며진 포토존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데카곤 스마트 워터피아는 정해진 시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인식하여 물총을 쏘는 재미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름에는 작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펫빌리지는 반려견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시설로, 놀이터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24년 5월부터 애견유치원과 호텔이 오픈하였다. 드넓은 잔디밭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고, 소형견과 중·대형견으로 나뉜 운동장 시설도 마련되어 있다. 견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갖추어져 있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태안 내 유일한 애견 동반 가능 테마파크인 엠플레이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장소이며, 다양한 체험과 편의 시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태안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앞으로 태안을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의 문화유산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서산문화원
당진문화원
온양문화원
금부서태문화원
산여천안문화원
문문문화원
화화화원
원원원원





**천안의 천연기념물,
광덕사 ‘호두나무’ (지정일 1998.12.23.)**

천안시에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노거수가 2그루가 있다.

먼저, 서북구 성환읍 위치한 ‘양령리 향나무 (약 1,200년)’가 있고, 동남구 광덕면에 위치한 광덕사라는 사찰에 ‘호두나무(약 400년 추정)’가 있다.

우선 이 호두나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려 한다.

호두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이남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약 20m까지 자란다. 꽃은 4~5월에 피고, 9월에 둥근 열매가 익는다.

광덕사의 호두나무는 나이가 약 4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8.2m이며, 지상 60cm의 높이에서 두 개 줄기로 갈라져 가슴 높이의 둘레가 각각 2.62m, 2.50m이다. 호두나무 3m 앞에는 이 나무의 전설과 관련된 ‘유청신 선생 호두나무 시식지’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약 800년 전인 고려 충렬왕 16년

(1290) 9월에 영밀공 유청신 선생이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돌아올 때 호두나무의 어린 나무와 열매를 가져와 어린 나무는 광덕사 안에 심고, 열매는 유청신 선생의 고향집 뜰 앞에 심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나무가 그때 심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곳 마을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호두가 전래된 시초가 되었다 하여 이곳을 호두나무 시배지라 부르고 있다. 이 호두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서 문화적 ·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 보호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호두나무는 천안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현재의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의 시초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호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지역에서는 매년 호두축제도 행해져서 특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당간지주

내포가야산, 내포불교와 보원사지 문화유산 이야기

▣ 내포가야산, 내포불교문화

충남의 역사문화는 내륙의 금강문화권과 서해안의 내포문화권으로 구분된다.

금강문화권은 금강과 계룡산 중심, 구석기문화, 백제문화, 조선시대 양반문화로 특징된다면, 내포문화권은 삽교천과 가야산 중심, 문물유입지, 삼국시대 불교, 고려시대 성리학, 조선시대 천주교가 전래된 것이 특징이다.

내포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조선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10개 고을(태안, 서산, 해미, 덕산, 예산, 신창, 아산, 홍성, 보령, 결성)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널리 유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험준한 산지보다 평탄한 구릉성 산지와 내륙 깊숙이 포구

가 형성된 지형적 특징으로 삽교천, 무한천, 곡교천, 광활한 충적평야지대로 농산물과 해산물 등이 풍부하다.

바닷길을 통한 문물유입으로 내포는 불교, 유교, 천주교가 빨리 전해져서 사상과 종교가 활성화되었다. 해안 방어가 필요해서 보령 충청수영, 해미 충청병영, 태안안흥진성이 축조되었다. 또한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한 것도 내포문화의 특징이다.

이러한 조건에 기인하여 내포불교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경주는 ‘석굴암과 불국사와 남산’으로 특징된다면, 서산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와 가야산’으로 특징될 수 있다.

둘째 경주남산은 많은 마애불이 남아 있어 가



오총탑

시적인 문화를 느낄 수 있다면, 내포가야산은 폐사가 되었지만 비보사상 등 심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5km 반경 내 100여 개의 절터가 있는 유례없는 절골이다.

셋째 경주가 왕실 귀족의 문화로 현존한다면, 서산 마애삼존불과 백제불교는 마애불의 미소 만큼이나 서민적인 문화로 나타난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내에서 부여공주가 왕실 귀족문화라면, 내포가야산권은 서민문화로 자리매김된다.

이러한 불교문화 가치에 대해 석굴암 본존불 미소와 문화적 가치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에 비해, 서산마애삼존불의 미소와 문화적 가치는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다.

▣ 보원사지 역사문화내용과 가치

(1) 보원사지 현황

1) 부성태수(893년 부임)를 지냈던 최치원이 남긴 「법상화상전」에 의하면, 응주 가야협의 보원사는 의상을 계승한 화엄십찰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 1987. 7.18. 사적 제316호로 지정되었다.
총면적 102.474m²(48필지)

■ 경관은 금당지 중심으로 동서방향이 길고 남북방향이 짧은 대지형상이며, 하천을 기점으로 하천 아래는 진입영역으로 당간지주, 석조가 위치하고 있고, 하천 위쪽은 중심영역으로 5층석탑과 금당지가 위치하며, 금당지 언덕 위는 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석축 위에 법인국사탑과 탑비가 위치하고 있다.

(2) 보원사지와 화엄종

보원사지는 마애여래삼존불로부터 남쪽으로 약 1km에 위치한 절터이다.

보원사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백제 시대 550년경 제작된 금동여래입상이 이곳에서 출토되었고, 인근에 백제 시대에 조성된 ‘마애삼존불’이 있으며, 보원사가 통일신라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였던 것¹⁾으로 보아 보원사는 최소한 백제 시대에 건립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원사가 최초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신라 현강왕 6년(880)이다.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명에 의하면, ‘선사는 옹진 사람으로서 흥덕왕 2년(827)에 가량 협산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보원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원사는 신라 하대와 고려초 크게 번성해 화엄종의 중심 사찰로서 위상이 높았다. 904년(신라 효공왕 8) 최치원이 저술한 〈법장화상전(法藏和尚傳)〉은 보원사를 ‘화엄십찰(十刹)’의 하나로 언급한다. 보원사에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구족계를 행하는 계단(戒壇)도 설치됐다. 무수한 고승대덕이 보원사에서 구족계²⁾를 받았다. 827년 보조국사 체징(804~880), 874년 진공대사(855~937), 880년경 광자대사 윤다(864~945), 888년 진철대사 이엄(870~936), 898년 법경대사 현휘(879~941)가 대표적이다. 보원사는 의상스님 이후 화엄십찰 중 바닷길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한 화엄도량이었다. 이런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2005년부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는 10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보원사는 백제 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에서 고려 제4대 광종 때 국사였던 법인국사 탄문스님이 보원사에 주석하면서 보원사를 크게 중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사』권제6(1035년)에 보면 “무릇 네 아들을 둔 사람은 한 자식의 출가를 허락하니 영통사, 송법사, 보원사, 동화사 등 4개 사원의 계단³⁾에서 소엽의 경률을 시험토록 하라”는 기록이 있다.

보원사는 조선중기 이후 어느 시기에 명칭이 강당사로 바뀐다. 1619년(광해군 11) 편찬된 〈호산록(湖山錄)〉은 “강당사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보원사로 이는 옛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강당사로 새로 지은 이름이다”라고 전한다. 보원사는 조선 후기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18세기 무렵 폐사된다. 1757~1765년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강당사가 ‘고적(古蹟)’으로 분류돼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면 보원사에는 법당, 법당 앞 2층 고각, 부도, 고비, 나한전, 취개정 등이 있었으나, 절과 집은 모두 없어지고, 비석과 탑, 철부처님만이 남았는데, 철부처님은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가져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다.

보원사가 언제 폐사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개심사에서 보관 중이거나 개심사로부터 환지본처한 경판이 조선 1565년, 1566년, 1591년에 제작된 점과 『호산록』(1619년)에 폐허가 되었다고 하지 않은 점과 『동여고비』(1682)에 보원사가 표시된 점, 『상산삼매』(1753년)에 거의 폐사된 모습으로 기록된 것으로

1682년에서 1754년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보원사지에는 보물로 인정받은 다섯 점의 석조물이 있다. 통일신라 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당간지주와 석조,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층석탑, 그리고 고려의 4대 임금인 광종의 스승이었던 법인국사 탄문스님의 보승탑과 탑비가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석부재가 남아 있다. 또한 보원사지 고려철불을 비롯해 다수의 유물들이 국립중앙

박물관, 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에 보관 전시 중이다.

현재 보원사지에는 옛 보원사의 혜택을 이어 2004년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말사로 등록된 보원사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보원사 법당에는 보원사지 출토로 전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진 통일신라시대 철불과 동일한 철불이 모셔져 있고, 1565년에 판각된 경판이 보관되어 있다.

(3) 현존유물



보물 당간지주



보물 오층탑



보물 법인국사보승탑



보물 법인국사보승탑비



충남유형문화재

2) 승려에게 지켜야 할 계율을 주는 의례로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관문

3) 불교에서 계戒를 수여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의례공간

(4) 제자리를 떠난 유물

- 국립중앙(용산)박물관

	① 고려철불	② 전 보원사지철불
추정조성시기	고려시대	통일신라
조성 배경	고려 광종 즉위 기념으로 법인국사 탄문스님 조성	-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시기	1918년 이전	1918년 이전
크기	257cm	150cm
		



손병희선생 유허지

- 국립부여박물관

	① 청동인왕상	② 금동여래좌상	③ 5층석탑 사리장엄구
추정조성시기	고려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크기	5.6cm	3.6cm	
			

의암 손병희 선생(孫秉熙, 1861~1922)은 3·1 독립운동 민족 공동대표 33인 중 1명이자, 동학 3대 교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의암 선생은 동학농민혁명에 실패한 이후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학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때쯤인 1898년 8월부터 1899년 10월까지 당진에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병희선생 유허지’는 그 당시 선생이 머문 곳으로 2012년 한국 천도교 기록을 토대로 당진 거주사실을 고증하였고(수청동 692), 동학의 중앙 사무 조직인 대도소(大都所)로도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2021년 8월

기존 고택의 목재를 보존, 활용하여 복원을 완료했다.

의암 선생이 당진에 머문 기간은 1년 3개월로 이때 당진지역을 중심으로도 포덕이 크게 일어났다. 그 결과 1910년에는 대덕리 차동로의 집에 천도교 전교실을 설치하게 된다.

당진시에서는 3·1 독립만세운동의 민족대표로서 인물적 상징성을 살려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 문화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4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021년 8월 손병희선생 유허지는 이전 복원했으며 2022년 9월 5일 당진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아산의 국보 이순신 장검



대한민국 국보 이순신 장검

문화유산은 그 시대의 공력이 모아진 명품이 기도 하고 쌓이고 덧붙여진 시간의 흔적이 내재 할 때 가치를 더한다. 오랜 시간의 무게감이 느껴질 때 그를 대하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아산시의 현충사에 소재한 충무공 이순신 장검이 대한민국 국보로 승격되었다.

이순신 장검 두 자루는 그동안 ‘이순신 유물 일괄’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국가보물에 지정되어 있었는데, 긴 시간 동안의 심사를 거쳐서 이순신의 장검 두 자루가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순신 장군의 유허인 현충사에서는 이를 기념하고 국보에 걸맞은 전시환경과 홍보차원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올해 충무공 탄신 기념일이자 아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성옹 이순신 축제에 즈음하여 재 개관하였다.

기존의 보물이었던 ‘도배’는 ‘복승아모양 잔과 받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충무공의 덕수 이씨 종가로부터 전해져 새롭게 세상에 드러난 요대의 ‘함’과 더불어 요대, 옥로를 분류하여 일괄 보물지정으로 재편하게 되었다.

국보 승격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는 이 칼을 ‘이순신 장도’라고 명명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도’는 외날의 형태이며, ‘검’은 양날의 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순신의 칼은 ‘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이라는 단어가 주는 품격을 감안하고, 지난 시간 동안 장검으로 불렸다는 점이 논의되어 최종 ‘이순신 장검’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아산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보이자,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충무공의 ‘난중일기’와 아산 풍산 홍씨 종가의 ‘기사계첩 및 함’에 이어 이순신의 장검이 지정됨에 따라 총 3건의 국보를 보유한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선정되어 전승하는 수천 점의 보물들은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보(至寶)로서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새삼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보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최상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장검의 승격에 대한 결과는 아산시의 큰 경사라 하겠다.

기실 충무공 이순신의 장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보로의 승격이 쟁점화되었던 사안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억지 주장하였던 바, 장검은 외형상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선정함에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대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불편한 인식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상호 문화적 시대상 교류와 기술적인 인용이 자연스러웠던 당시의 역사현상, 조선의 공예적 기법이 물씬 반영되어 제작된 조선적인 명검은 조상의 슬기로운 기능이 인정되어 바야흐로 세상에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순신의 장검은 칼로써의 탁월한 강도와 예리함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칼날에 새겨진 명문과 선각 장식의 기술성, 칼집 제작의 조선 전통방식 등 세련되고 조화로운 조형성이 우수하며 전체적인 완성도가 탁월하다. 장검은 결국 장검을 만드는데 앞섰던 일본의 제작기법에 더하여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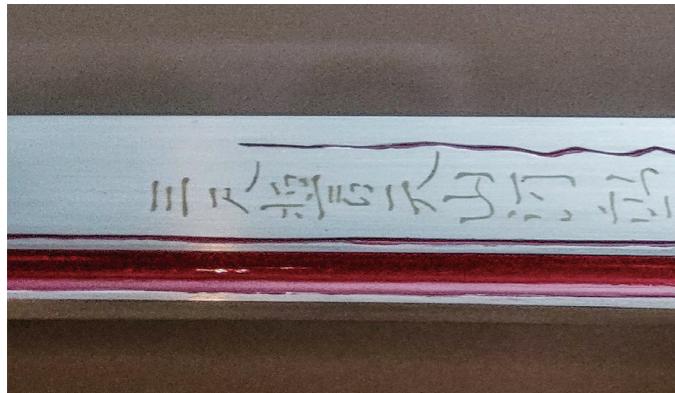
선환도의 외장적 특징이 결합하고 보존상태도 우량한 최상의 명품으로 손색이 없다.

더욱이 현충사의 장검은 온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충무공 이순신의 칼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유례한 외형이나 장검이 주는 품격과 검광에서 오는 기세는 국내 그 어떤 전통검보다도 가장 뛰어난 유품의 명검으로 평가된다.

두 자루는 각기 197.2 cm 와 196.8 cm의 길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전용이 아니라 의전용이다. 당시 검을 주요 전장의 전투무기로 활용하였던 일본의 경우에도 실전용 칼이 140 cm를 넘지 않았듯이 이순신의 장검은 실제 사용한 것 이 아니었으며, 동 시기에 굳이 두 자루를 제작한 뜻은 남다르다.

두 자루라는 장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건곤, 음양, 태극, 자웅을 의미하며, 두 자루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길상(吉祥)의 표상으로 제작되었다.

임진왜란 개전 후 2년여 만에 완성되었던 만큼 당시 충무공 이순신장군에 대한 조선백성의



칼날에 새겨진 충무공의 시와 선각문양



기대와 존경심이 숭고하게 스며있으며 그 명성과 성원에 걸맞도록 미려함을 갖춘 최상의 결작이다.

장검은 조선의 모든 첨단 공예기법을 총동원한 기술의 완성체이다. 무엇보다도 제작자가 대귀련(太貴連) 이무생(李茂生)이라는 실존인물이 확인될뿐더러, 제작의 시기와 장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 그리고 충무공의 신귀가 새겨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극대화된다. 칼을 송상하던 사무라이 문화의 일본에는 현재도 수십만 자루의 칼이 전해오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50여 자루의 전통검이 전래되고 있다. 그런데 제작한 연대가 분명하고, 제작자와 검의 소유자가 확실한 검은 이순신의 장검이 유일무이하다는 점이 국보선정의 주된 이유로 참작되었다. 특히 장검의 국보승격은 임진 7년 전쟁의 사실상 종지부였던

이드 인 차이나'와 달리 우리 선조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조선의 장검에 대해서 일괄 보물로부터 차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새롭게 와닿는다.

또한 장검이 별도의 국보에 지정되었다는 것은,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보유한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주요 문화유산의 수치적 증가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현충사의 사당에 전시된 역사화 십경도(十景圖)에는 이순신의 생애를 열폭의 그림으로 표현하여 공의 숭고한 업적을 표현하고 있다. 충무공이 수군의 지휘관이 되기 이전의 초임시절, 함경도 녹둔도 만호의 직책으로 북방의 여진족을 섬멸하였던 그림이 있는데, 그 속에는 칼을 휘두르며 호기로운 기세로 적장을 쓰러뜨리고 있다. 이순신이 일당백의 무장이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효행이 지극하여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이순신, 서정적인 시를 짓는 소양과 고매한 인격

자로서의 단아한 이순신, 지략이 출중하고 공무에 탁월한 이순신의 엄정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왜적을 섬멸하여 수장시킨 용맹한 무장 이순신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성이 바로 장검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이순신의 위대함을 학습하였고, 미디어 매체와 서적으로 이순신을 접하고 존경하는 성장과정을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이순신은 '성웅'으로 추앙되었으며, 완전무결하고 조금의 어긋남이 없는 인물로 거의 신격화된 위상으로 예우하였다.

조선의 온 강토가 전쟁의 참화로 신음할 지경에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만큼은 일반 백성들까지도 어버이처럼 장군을 의지하여 누란의 위협에서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 장군의 섬세함과 자애로운 지도자적 면모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겠지만,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 한복판의 해전에서 장군의 한마디 호령으로 전 함대가 일사분란하게 왜군과의 일전을 벌릴 수 있었던 동력은 어진 성품으로 군사들을 감화시키는 것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장수로서의 서슬 퍼런 위엄이 오금을 저리게 하고 그 기운에 대한 병사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수반되어 있어야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이다.

그 모습을 오늘의 우리는 아산 현충사의 이순신 장검에서 만나고 체감할 수 있다.

아산의 현충사에는 이미 국보로 선정된 난중일기와 장검 그리고 전술한 보물에 이어 '선무공신 1등 교서'도 보물로 기 선정되어 있다. 충무공이 우리 민족사에 끼친 족적만큼이나 공의 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민족적 자존을 부여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또한 이 유물들은 충무공의 실제고향인 서울이나 임진왜란시에 활약을 펼쳤던 남녘의 여수와 통영 그리고 남해보다 이순신의 본령은 결국 우리 아산임을 만방에 뽐낼 수 있는 든든한 자랑거리라서 이번의 국보승격은 아산시와 우리 충남의 뜻깊은 의미라고 여겨진다.

비단 아산시민의 자랑거리를 넘어 온 국민이 누란을 극복한 충무공의 후예답게 기개와 포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바로 아산의 현충사에서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순신 장검이다.

장검에는 다음과 같은 이순신 장군의 일필휘지가 새겨져 있다.

삼척서천산하동색 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일휘소탕혈염산하 一揮掃蕩血染山河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호 물폐기농요

물폐기농요는 금산을 대표하는 일노래이다. 금산은 예로부터 전라도에 속했지만 삶의 문화는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지리산에 이르는 지역 즉,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역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백두대간을 따라 오염되지 않는 자연의 생명력을 간직한 메나리토리로 부르는 물폐기농요는 유장하면서 힘이 서려 있는 금산의 전통민속예술이다.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는 그냥 심심하여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였다. 노래하지 않으면 하루도 넘기지 못하는 고된 노동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었다. 흙을 살리고, 곡식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 세상을 세상답게 하는 소리가 바로 ‘산이야 소리’이고 ‘방애소리’였다. 산이야 소리는 바로 살아 있는 오늘을 위해 오늘 해야 하는 절실한 자연의 질서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넘친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소리로 산을 넘친다.

들판을 적시는 생명의 노래가 바로 물폐기농요이다.

물체기농요는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토신고사 소리, 모심을 때 부르는 모심는 소리, 호미를 사용하여 논을 매는 아시매기의 얼카산야, 손으로 논을 매는 재벌매기의 심장소리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 부르는 방애소리, 쌈사는 소리와 한 해의 농사가 마치었음을 알리는 장원놀이가 있다.

물폐기농요는 1987년에 1차 조사를 하고, 1988년에 2차 조사, 1989년 보완 끝에 학계에 알려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에 금산 인삼제에서 발표하였고, 1991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2년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지금까지도 금산에 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재로 전승되고 있다.



충청남도 무형유산 산유화가 : 시대를 넘어선 노래의 여정

충청남도 부여는 금강하구에 위치한 넓은 평야를 바탕으로 과거 논농사가 주종을 이루었던 지역이기에 이 지역의 노동요는 논농사와 관련된 노래가 많다. 소개할 충청남도 무형유산 「산유화가(山有花歌)」 역시 논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노동요이다. 소개에 앞서 「산유화가」가 전승되고 있는 세도면은 금강이 흐르는 평야지대로 전통적으로 논농사의 비중이 큰 지역이다. 1990년대 초반 방울토마토의 재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전국 최대의 방울토마토 산지가 되었다.

과거에는 모를 심을 때 주로 품앗이를 하였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은 품앗이뿐만 아니라

일꾼을 사서 모내기를 했는데, 이때 능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꾼을 불러 노래를 시키기도 하였다. 소리꾼이 장구를 치며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일꾼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모내기를 하였다. 이처럼 「산유화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모심는소리」를 지칭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에서 불렸던 논농사소리를 통칭을 의미한다.

원래 「산유화가」는 백제시대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나라를 잃은 슬픔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구슬프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 조선 중기 이사질(1705~1776)은 「산유화가」를 충청지역에서 불리고 있는 농가(農

歌)라고 하며 백제왕이 남긴 노래라고 그의 유집인『흡재집(翕齋集)』에 기술하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유화는 충청지방의 농가(農歌)인데, 세상에서는 백제왕이 남긴 노래라고 전해진다. 나는 일찍이 부여의 노인들에게 들으니, ‘의자왕대에 산유화와 고유란이란 두 노래가 있었는데 백제가 망한 후에 산유화는 농가에 남았고 고유한은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니, 지금 부여 현 북쪽에 고란사가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
(후략)

이를 통해 백제왕이 남긴 노래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농부들의 소리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이사질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황윤석(1729~1791)은『이재난고(頤齋亂藁)』에서 “백제의「산유화」는 단지 그 소리만 남아있고 가사는 없어졌으니, 이는 반드시 당세에 유행되었을 뿐 문자에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백제시대의 가사는 소실되고 그 곡에 새로운 가사가 덧입혀 전함을 의미한다. 이후의 기록은『중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부여지』(1929) 등이 있다.『중보문헌비고』권246 백제가곡조에는 “남녀가 서로 즐기는 가사로서 음조(音調)가 처량하고 구슬퍼「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와 짹할 만하다.”라고「산유화가」를 기술하고 있다. 비록 가사가 없어 직접적인 맥락을 찾는 것은 어려우나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으며 현재도 부여를 중심으로「산유화가」가 불린다는 점으로 보아 백제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또한『부여지』에서는「산유화」의



근원과 유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 중기 충남 부여 인물인 이사명(1647~1689)의『포암집(蒲菴集)』을 인용하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흡재집』보다 반세기 이상 빠른 것으로 당대 부여 일대에「산유화」가 민요로 널리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부여에서「산유화가」는 조선후기 아래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왔다. 애잔한 곡조를 바탕으로 노동 현장에서 불려왔으나 농사현장의 산유화가 전승은 모심기 방법의 변화의 큰 영향을 받아 원래 줄모를 심기 전에 전승되던 노래였으나 줄모를 심으면서부터 모심기에서의 산유화가 전승은 중단되었고 놀이와 여가, 이따금 심심할 때 방안에서 부르는 것이 전승되었다. 무형유산으로는 1972년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에서 발굴되어 1975년 10월 16일 대전 신도극장에서 제21회 백제문화제에서 최초로 공연되었다. 다음해 10월 진주에서 열린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1982년 12월

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청남도 무형유산「산유화가」는 흥준기(1899~1991), 박홍남(1920~2006), 이병호(1926~1995)를 시작으로, 조택구(1937~2016), 김영구(1946~)를 거쳐 송관섭(1959~)에 이르고 있다.

「산유화가」는 농사현장에서 다양한 가사를 얹어 부르는 형태로 전승이 되었다가 무형유산 지정과 맞물려 모심기에서 벼를 수확하고 타작하는 과정의 작업을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곧 벼농사의 각 과정의 순차에 따라서 노래가 구성되고 이것이 대표성을 갖는「산유화가」로 고정되어 현재 여섯 가지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눈에 모를 심으면서 부르는「모심는소리」와 김을 매면서 부르는「논매는소리(혹은 김매는소리)」, 벼를 타작하면서 부르는「벼터는소리」, 타작한 벼에 키질을 하면서 겸불을 날려버릴 때 부르는「겸불날리는소리」, 그리고 벗단을 쌓으면서 부르는「벗단쌓는소리(혹은 노적노래)」 그것이다.「모심는소리」와「논매는소리」는 다른

지역의 논농사소리와 마찬가지로 느리게 부르는 긴소리와 빠르게 부르는 자진소리가 짹을 이루고 있고, 이 중「모심는소리」는「산유화」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메김 소리의 첫머리에 “산유화야~”라는 가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벼터는소리」는「벼바심소리」,「겸불날리는소리」는「나비질소리」나「솔비소리」로,「벗단쌓는소리」는「노적소리」,「밭어라소리」,「노적가리쌓는소리」 등으로 불린다. 충청남도 무형유산「산유화가」에는 마지막에 노래의 끝을 알리는「마감소리」가 붙어있어, 총 6종 8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충청남도 무형유산「산유화가」는‘산유화가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보존회는 회장을 비롯한 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유자와 보존회 회원은 백제문화제를 포함하여 매년 한차례 이상의 정기공연을 실시하며 이 공연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산유화가」의 음악적 우수성을 시연해오고 있다.

전수받은 사람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에 급격하게 사라져가는 지역의 논농사소리를“문화유산”이라는 틀에 넣어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많은 시도 무형유산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산유화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소중히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방연옥

이육사 시인은 종로의 유명한 포목점 '백상회'에 진열된 한산모시를 보며 '저게 한산모시라는 거지!' '모시는 왜?' '입고 싶어서, 백구두와 광당포 중의 옥색 대님을 차고 모시 두루마기를 한번 입어봤으면, 이대로 양복만 입다 쓰러질 것만 같아서' 라고 말했다. 시인은 사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탁월한 섬세함으로 한산모시의 고급스러움과 단아함, 그리고 시원하다는 강점을 페뚫어 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산모시 한 필을 완성하는데 '침 세 되, 땀 서 말'이라는 옛말도 있을 만큼 생모시 풀을 모시옷감으로 만드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수고스러운 작업이다. 따라서 이를 이어 받아 직조기술을 연마하는 이는 차츰 차츰 줄어들고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방연옥 장

인은 1945년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서 2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나, 처음 모시를 접한 것은 모시풀 냄새가 늘 연하고 부드럽게 풍겼던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였다. 같은 마을에 사시는 한산모시짜기 국가 보유자 문정옥 선생님께 모시 짜기를 배우면서 모시 짜기 전 과정을 습득하게 되었다. 문정옥 선생님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방연옥 선생님을 후계자로 등록을 해 주셨다. 1980년 전수장학생이 되었고, 1986년 이수자로 인정되고, 1987년 전수교육조교가 되었다가 2000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방연옥 선생은 자신의 모시짜기 기술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대학에 출강을 하는 등 후대에 전승할 책임을 가지고 한산모시짜기의 전통 계승과 보급에 헌신하고 있다.



자염

'자염'이란 천일염이 보급되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전통 소금으로 갯벌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모은 함수를 가마솥에 끓여서 만든 소금이다.

조금(바닷물이 적게 들어오고 나가는 기간)때 약 7~8일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높은 갯벌에 웅덩이를 파고 중앙에 간통(동그랗게 박은 말뚝을 이엉으로 감싼 통)을 설치한 다음 펴낸 흙을 웅덩이 주변에 펼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 동안 소(牛)로 써레질하여 갯벌을 잘 말린다.

수일 후 말린 흙을 사리(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간)직전에 웅덩이에 넣고 덮으면 사리 때 가득 들어온 바닷물이 마른 갯벌의 소금기를 녹인다.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은 묻어놓은 간통에 고이게 되고 사리가 끝나 바닷물이 빠지면 간통에 찬 물을 퍼서 염벗(가마솥을 설치한 움집)으로 옮겨와 솔가지 불로 8시간 정도 끓인다. 이때 불 조절과 뜸을 잘 들여야 좋은 소금이 된다.



1 염벗 만들기 2 통자락 만들기 3 써레질 4 덩이질 5 나래질 6 통자락 헐기1
7 통자락 헐기2 8 염도 재기 9 함수 푸기 10 함수 낚기 11 함수 끓이기 12 소금(자염)건지기

1950년대까지 태안과 충청 해안을 비롯한 전국의 바닷가에서 명맥을 이어오던 자염은 일제 강점기에 들여온 천일염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고 거의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제는 경제 원리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자염을 재현하려 해도 좋은 질의 갯벌이 크고 작은 간척사업으로 모두 사라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1964년에 막은 방조제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살아난 갯벌을 태안문화원이 발견하여 2001년에 자염을 복원하고 재현할 수 있었

다. 당시로선 막대한 노동력과 양곡을 소비한 공사가 실패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고로 인해 현재 자염(통자락 방식)을 재현할 수 있는 소중한 갯벌이 남아 문화적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활문화로서의 '자염'은 우리나라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본질이다. 조수에 따라 하루 두 번 잡기는 매력적인 갯벌의 또 다른 이면에는 우리 조상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과 애환이 담겨 있다.

향토문화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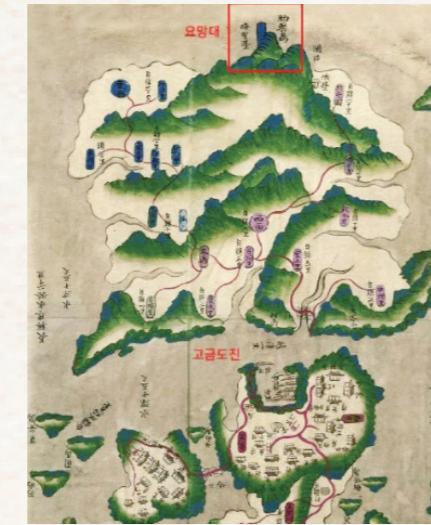
보령문화원
금산문화원

충청수영 권설봉수

1. 봉수(烽燧)의 의의

우리나라는 북방으로는 대륙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반도 지형이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면서, 역사상 많은 외침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국방 대책이 있어왔다. 특히 대륙과 해양으로 오가는 변방의 외침 정보를 신속히 중앙에 전달하여 범국가적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외침 대비와 관련하여 변방 접경 지역에서 중앙 지휘 본부까지 군사적 움직임을 즉시 전달 대비하는 국방상의 통신 수단이 필요하였다. 그 수단이 바로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봉수제도이고 또한 발달하여 왔다.

산악과 해변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낮에는 연기(燧), 밤에는 횃불(燐)로 신호하였고, 하늘로 오르는 연기나 횃불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리 뜰을 썼으나 쉽게 구하지 못하여 다른 짐승의 변을 이용하기도 하고 연통을 써서 직봉으로 올렸다고 한다. 불을 피우는 연조나 연조가 봉돈, 봉돈을 올려놓은 연대 그리고 봉



수대지가 주변으로부터 구분되도록 성을 쌓았다. 또한 창고와 무기 등을 비치하는 시설이 있다. 봉수대 간격은 물에서는 12km 정도가 보통이고, 바다에서는 그 보다 더 넓어지기도 하였다.

봉수의 종류에는 접경 지역에 위치하여 적의 동태 파악 등 정보수집을 주 임무로 하는 연변 봉수와 정보전달에 집중하는 내지봉수가 있으며 최종 전달된 정보를 모으는 경봉수가 있다. 봉수군은 천역에 속하였고, 매우 고된 일이었다. 신분은 세습되었지만, 봉수제도의 정비에 따라 차츰 양인 정군을 봉족으로 교대 입번하게 하거나 봉수 근처에 사는 양인을 모아서 충원하기도 하였다.

우리 한반도에서 봉수 체계는 삼국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 아유타국의 허황옥이 가야에 도착한 일 1), 백제 온조왕 10년 청목산 싸움에서의 봉현(烽峴) 2), 고이왕 33년 신라 봉산성 전투 3) 등은 바로 그 당시에 이미 봉수 체계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또한 고려 시대에는 중국 송나라 사신 서궁

이 쓴 『고려도경』(1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흑 산도에서부터 서해안 따라 개성 왕성까지 인도에서의 봉수체 운용, 서북병마사 조진약의 주장에 의한 봉수식 제정(1149) 등은 개경과 변방을 연결하는 봉수제도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봉수제도와 그 운영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자료와 유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봉수제도의 구체적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조선 시대 특히 세종 때 정비된 봉수제도가 전해지고 있고 그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2. 서해 봉수

서해의 봉수는 대부분 보령 지역에 있다, 해안을 통해 해양 세력의 접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봉수 유적 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봉수제도가 혁파된 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봉수대의 파손되고 주변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다. 또한 가시덤불과 봉수대지 내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 원형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덤플과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그 실측을 통한 지표조사와 도면화한다면 전체적 형체를 파악할 수 있다.

보령지역의 봉수는 보령시 오천면에 충청수 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관계로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해안 방어의 중심지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보령 지역의 봉수 유적은 총 12개에

이른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군산이 된 어청도 봉수까지 합한다면 13개가 된다.

앞서 말한 13개 유적 중 8개는 우리나라 봉수망 제5로 중 충청 해안을 지나는 간봉 노선이며, 5개는 충청수영이 섬에 설치하여 운영한 권리설봉수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보령지역의 봉수 중 충청수영에서 운영한 권리설봉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히 그 명칭이나 위치를 알리기보다는 그 정확한 위치와 노선 변화 과정 파악, 그 운영 실태, 그리고 봉수대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서 보령지역 권리설봉수의 특징을 규명해봄으로써 조선 시대 보령 지역의 권리설봉수가 우리나라 국가 방위 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고, 봉수 연구의 중요성에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권리설봉수

권설봉수는 조선 후기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영(營), 진(鎮), 보(堡) 등에 자체적으로 설봉하여 본영(本營)으로만 연락하도록 운용되었던 봉수를 지칭한다.

이 권리설봉수의 범주에는 임진왜란 후 수군진(水軍鎮)의 배후 산정에 수군(水軍)들이 임시로 설봉하여 해상의 안위를 진(鎮)에 알리도록 하였거나 혹은 구한말 이양선(異樣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봉하였던 요망(瞭望), 별망(別望), 해망(海望), 돈대(墩臺) 등이

1) 「삼국유사」 제 2권 기이편 가락국기

2)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 10년

3)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33년

포함된다.

권설봉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별망, 해망, 돈대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요망(瞭望臺)가 있다. 요망 혹은 대는 주로 해안을 후망하기 용이한 해안 혹은 도서의 산정에 흙 또는 석재를 쌓아서 만든 시설을 지칭한다.

조선 후기 발간 지지의 기록보다는 「조선후기 지방지도(1872)」에 주로 경상 전라 남해안 일대의 도서에 다수 분포하며, 동해안과 서해안에도 소수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요망(대)에 근무하는 책임자를 요망장(遼望將)이라 하였으며 그 밑에 요망군(瞭望軍)의 경우에는 진(鎮) 소속 수군(水)들이 교대로 망을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4. 충청수영 권설봉수망

권설봉수는 국가 5로의 봉수망 외에 수영 혹은 병영 등에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한 봉수를 의미한다. 보령 도서 지역 권설봉수는 충청수영에서 운영한 봉수이다.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에 따라 충청수영(망해정)부터 서남쪽 방향으로 연결되는 원산도, 녹도, 외연도, 어청도에 각각 봉수대를 설치하여 남쪽에서 올라오는 왜적을 감시하고, 서쪽 중국과 서양의 이양선 출몰을 경계하였다. 이 권설봉수들은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속히 충청수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충청수영 망해정의 전보 관계를 가진다. 외연도 봉수는 어청도 봉수에서 받아 녹도 봉수에 전해주는 봉

수이고, 녹도 봉수는 외연도 봉수에서 받아 원산도 봉수에 전해주고, 원산도 봉수는 녹도 봉수에서 받아 충청수영성 망해정 봉수에 전해주었다. 망해정 봉수는 원산도 봉수로 전달된 정보를 곧바로 수영 지휘부에 전해져 군선 출동 등 해당 조치를 즉각 실행하였다.

이러한 봉수체계에 따라 봉수 전달 및 즉각 군선 출동의 예로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는 1842년 외연도에 세실 함대가 출몰⁴⁾ 한 경우이다.

5. 충청수영 권설봉수의 실제

가. 어청도 봉수대

전북 군산시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3시간 쯤 가면 어청도(於淸島)에 이른다. 어청도는 원래 충청도의 홍주목에 속해 있었고, 1901년 오천군이 생기면서 충청도의 오천군에 편입되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어청도에는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첫 봉수대가 위치해 있다. 어청도 → 외연도 → 녹도 → 원산도 → 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를 통하여 충청수영에 신호를 전하였다. 외연도 봉수대와는 19km 떨어져 있다.

봉수대의 위치는 어청도의 중심 산줄기인 서쪽 산능선의 중앙에 있다. 이곳은 현재 해군 부대의 안쪽인데 통신시설과 레이더 시설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205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레이더가 있는 곳보다는 좀 낮은 곳이지만 어청도 북쪽의 낮은 산

지 너머로 외연도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다.

봉수대는 우선 능선의 경사부분에 1m 정도의 축대를 쌓고 평탄지를 만든 다음 지름 5m, 높이 2m, 둘레 18.2m의 원형기둥 모양으로 자연석을 쌓고, 가운데는 흙으로 채웠다. 오르내리는 계단은 남쪽에 나 있는데 지금도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없다.

남쪽의 평탄지에는 원형(지름 3m)으로 돌을 둘러놓은 곳이 보인다. 아마도 연료를 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의 중앙부는 약 50cm 정도 낮게 하고 장작을 쌓아 놓았다. 2000년에 해군부대에서 안내판을 세운 것으로 보아, 당시 중앙부를 훼손하고 장작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나. 외연도 봉수대

봉수대는 외연도 봉화산 정상에 설봉하였다. 봉화산 정상은 해발 279m로 외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사방으로 바다가 훤히다. 서남쪽 어청도, 동쪽으로 녹도가 보인다. 정상에 봉수대지가 있는데 충청수영성에서 운용하던 권설 봉수이다.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에서 봉수 정보를 받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녹도 봉수대에 전해주는 봉수대이다. 어청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0km, 녹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25km이다. 외연도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인 봉화산 정상(해발 273m)에 위치한다.

봉수대는 폭 7.8m, 둘레 24.5m의 원형으로 높이는 북쪽 부분이 130~150m, 남쪽 부분이 180~200cm이다. 모두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중심 부분이 낮다. 문은 북쪽 방향으로 나 있다. 문의 폭은 1m 정도이다. 옛날 당제 지낼 때 이곳에서도 제를 올렸다고 하며, 일제 강점기까지도 이곳에 올라 다른 섬에서 봉화불이 올 오는지 관찰했다고 한다.

다. 녹도 봉수대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받아 오천면 원산도리 오봉산 봉수대로 전해주는 봉수대이다. 외연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25km, 원산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9km이다. 청파초등학교 녹도 분교 바로 뒤에 있는 봉우리(해발 90여m)에 있다.



어청도 봉수대



외연도 봉수대

4) 《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 13권 현종 12년 6월 23일, 7월 3일의 기록



녹도 봉수대



원산도 봉수대

봉수대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내부에는 동서 7.6m, 남북 9.6m, 둘레 27m 정도의 원형 단을 만들어 봉수대를 축조하였다.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180cm이다. 출입문은 북동쪽에나 있는데 폭은 1.2m 정도이며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봉수대의 중심부분은 지름 220cm 폭은 흙으로 되어있고 그 주변은 100cm 폭으로 직경 10cm 정도의 둑근 자갈이 깔려 있다.

봉수대 밖으로 3~4m 떨어져 석축의 담장이 둘러져 있다. 봉수대를 만든 돌은 모두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다. 봉수대의 서남쪽 6m 떨어진 곳에는 돌로 구획된 5.5m × 4.8m 크기의 평평한 공간이 있어 연료를 저장한 공간으로 보인다.

봉수대 주변에는 꾸지뽕나무, 팽나무, 굴거리나무 등이 울창하다.

라. 원산도 봉수대

녹도 봉수대에서 받아 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로 전하던 봉수대이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진촌(村)마을 서쪽

산봉우리에 있다. 이곳에서 녹도 봉수대까지는 16.9km, 영보리 봉수대까지는 12.15km이다.

진촌 마을은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근무하던 원산진이 있던 곳이다. 진촌 마을의 서쪽 언덕 너머에 ‘관가’라고 불리는 옛 진영(營)이 있던 곳이 있고 이곳 북서쪽 봉우리에 봉수대가 있다.

봉수대는 산봉우리의 정상(117.9m)에 있는데 동서지름 730m, 남북지름 720m, 둘레 23m이며 원형이다. 둘레는 가로 100cm, 높이 30m 정도로 잘 다듬은 직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4~5단 쌓았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강암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먼 곳에서 운반해다 다듬어 쌓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흙으로 채웠는데 돌로 된 벽보다 40여 m 높게 하였다.

석축한 벽의 높이는 가장 낮은 곳이 서북쪽으로 90cm, 높은 곳은 동쪽으로 160cm이다. 봉수대의 남쪽 부분에는 폭 175cm의 문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게 하였고, 중앙에는 가로 340m 세로 200m, 길이 90m 정도의 직사각형 구멍을 만들었다. 이 구멍의 북서측이 남아있는 것

으로 보아 석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에서 10여m 폭으로 평지가 이어지고, 이어서 급경사지가 나타나 이곳에도 봉수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 동북쪽 10여m 떨어진 급경사지 아래에는 20여 평의 평지가 있어 봉수대에 사용하던 연료를 모아둔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 망해정봉수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밤까시 마을 남쪽 산봉우리(해발 118.7m)에 있는 봉수대이다. 원산도 오봉산에 있는 봉수대에서 받아 충청수영에 전하는 봉수대이다. 원산도까지는 12.15km, 충청수영 서문까지는 1.27km이다.

충청수영이 내만(內灣)에 깊숙이 있어 원산도 봉수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산도 봉수대가 바라보이고,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뱃길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라 충청수영의 전방초소 역할을 하던 봉수대이다. 봉수대 자리는 큰 웅덩이가 파여 있다. 주민들의 중언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판 것이라고 한다. 웅덩이는 지름 약 10m이고, 깊이 2.5m, 둘레 폭 4~5m이다. 봉수대가 있던 봉우리 남쪽에는 3~4m 폭의 평탄지가 있어 길로 이용된다. 봉수대가 있을 때 삭토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쪽에도 2~3m 폭의 평탄지가 보인다.

봉수대지 동쪽에는 넓은 평탄지가 있고, 팽나

무가 있으며 조선시대의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 등이 발견되어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군이 거주했거나 연료를 저장했던 공간으로 보인다. 이 봉수대를 망해정(望海亭) 봉수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보아 이곳에 바다를 감시하는 망해정이란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충청수영에서 1.27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충청수영에서 직접 관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충청수영 권설봉수 관리

도서지역의 권설봉수 잔존상태를 살펴보면, 어청도봉수대는 인근 군부대에서 관리하면서 잘 보존하고 있고, 외연도 녹도 원산도봉수는 모두 가시덤불 속과 봉수대 안에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었으나, 담사를 하면서 가시덤불과 나무를 제거하면서 그 원형이 거의 드러났다. 어청도, 외연도, 녹도, 원산도 봉수는 육지의 내지 혹은 연변봉수에 비하여 잔존상태가 원형에 가깝게 아주 잘 남아 있다. 모두 한결같이 섬에서 가장 통망(通望)이 좋은 산의 정상에 자연석으로 쌓은 둑근 원형이나 약간의 원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높이는 약 2~2.5m 직경 약 12m 둘레 30m 정도의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약간의 구덩이를 파고 불을 지피는 시설을 하고 있어 도서지역 봉수의 원형을 추론해 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중봉 조현 선생 초상에 대한 소고(小考)

우리 금산의 모든 분들이 한번은 들어 본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 바로 칠백의 총과 함께 떠오르는 이름, 중봉(重峯) 조현(趙憲 1544~1592) 선생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가장 큰 자부심, 자긍심의 근원이 충절이요 이를 대표하는 이름이 조현 선생이기 때문이리라. 그 시대에 순절한 금산군 수충민공 권종, 제봉 고경명 선생, 변옹정선생과 그 이전 시대에 고을 이름인 금산의 금(錦)의 글을 받아 온 김신 선생, 성리학의 최초 실천자 율정 윤택 선생 등 수많은 유명한 이름 중에도 우리 지역민의 뇌리에 가장 깊게 각인된 이는 조현 선생이라 하겠다. 물론 이것은 필자 개인의 생각이 다분히 반영된 이야기이다.

선생은 원래 경기도 김포 출생으로, 본관은 백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 · 도원(陶原) · 후율(後栗),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이이(李珥) · 성훈(成渾)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였으며, 특히 이이의 학문을 계승하여 서인(西人)의 학통을 이은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1567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강직한 성격으로 인해 순탄하게 관력을 쌓지는 못하였다. 성균관 재학 시절 왕실의 불교 신봉 관행을 비판하다가 사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고, 시무의 폐단을 통렬히 비판하고, 일본과의 통교(通交)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선조의 미움을 받기도 하였다. 1574년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당시의 문견을 바탕으로 『동환봉사(東還封事)』를 지어 조선의 제도 개혁을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 · 김경백(金敬伯) · 전승업(全承業) 등과 의병 1,600여 의병을 모아 청주성 등을 수복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후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왜군과 금산에서 전투를 벌인 끝에 700여 의병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고 1604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록되고, 이후 영조 30년인 1754년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고종 20년(1883)에는 문묘에 배향되었다. 표충사(表忠祠), 우저서원(牛渚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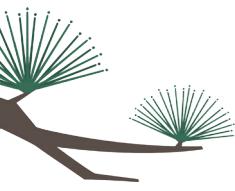
선생은 성격이 지극히 강직하여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임금께 올렸다. 도끼(斧)를 지니고 (持) 대궐(闕) 앞에 끓어 엎드려(伏) 상소(上疏)를 올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월(斧鉞)이라는 도끼로 머리를 쳐 달라는 각오로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를 말한다. 이 하나를 보아도 강직함으로는 더 말할 바 없는 분이셨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겠다. 모두가 알고 있는 선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얼마 전 한 전시회 홍보를 보고 난 소회(所懷)를 말하고자 함이다. 전시회 홍보에는 선생의 영정이 홍보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음이 사뭇 찹찹했다.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정 때문이었다. 훌륭하다 할 기획의 전시와 전시작품에 딴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홍보에 사용된 영정이 거슬려서였다. 영정을 그린 이는 운보 김기창이다.

김기창은 청각과 언어장애를 극복하고 예술혼을 불살랐던 작가로 유명하다.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7세에 장티푸스를 앓으면서 청각을 잃고 언어 장애를 얻었다. 1930년 마지막 왕실 화가였던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1892~1979)의 화숙인 이묵현(以墨軒)에 들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김은호에게 사사한지 반 년만인 1931년 5월에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판상무도(板上跳舞)>로 입선하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화업을 이어나가 1943년 제22회 조선미술전람회에는 추천작가로서 <역존(釋尊)>을

출품하였으며 이 해에 함흥에서 첫 개인전을 열기도 하였다. 이 시기 김기창은 김은호가 구사한 일본화풍의 영향 아래 사실주의 채색화를 주로 그렸으며 특히 인물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제강점기에 김기창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연달아 입상하면서 화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비호를 받으며 일제의 군국주의를 찬동하는 내용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1942년에는 친일 미술 전시회였던 ‘반도총후미술전’, ‘조선남화연맹전’, ‘애국백인일수전람회’에 참가하여 일제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작품을 출품하였다. 또한 일제의 강제 징집을 독려하는 연재물인 《님의 부르심을 받고》에 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친일 행적으로 김기창의 이름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으며 그의 행적은 2004년에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 두산백과 발췌, 정리 –

김기창의 스승인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 일본식 이름: 鶴山殷鎬 쓰루야마 마사시노기, 1892년 6월 24일 ~ 1979년 2월 7일)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한국화가였다. 한국 화가로는 드문 북종화 계통의 화가로서 채화(彩畫)를 통하여 한국의 풍속화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갔으며, 중국 명대(明代)의 구



영(仇英)이나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와도 비견할 사녀도(仕女圖) 형식의 한국적 화풍을 수립한 화가로 평가된다. 그외 채색화로서 산수·인물·화조 등 다양한 작품세계를 전개시켰고 재래 도화서풍의 초상화도 많이 남겼다. 1919년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적도 있으나, 1920년대 후반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식 채색화 기법을 익히면서 친일본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일 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에 애국금차회의 활동 모습을 담은 <금차봉납도>를 제작하여 조선총독부 총독 미나미 지로에게 증정하는 등 태평양전쟁 기간 중 미술계에서 적극적인 친일파로 활동했다. 조선미술가협회의 일본화부에 참가하여 전쟁 지원을 위한 친일 미술 작품을 심사하거나 전시하는데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광복 후에는 뚜렷한 친일 경력 때문에 대부분의 미술인들이 망라된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다시 미술계의 중심에 복귀했다. 순종어진 유지초본과 이충무공영정 또한 그의 작품이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미술부문에 선정되었다. 문화예술계 인사를 많이 선정하지 않은 2002년 발표 친일파 708인 명단에도 미술 분야에 심형구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두드러진 친일 이력과 일본풍으로 의심받는 화풍과 관련하여, 김은호가 그린 논개와 춘향의 영정을 철거하자는 주장과 논란이 있었다.

–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발췌, 정리 –

화업의 대를 이어가며 친일의 더러운 이름을 새긴 두 대가의 친일 행적을 논하고 그를 비판함이 이 글의 논지는 아니다. 다만 그들의 친일로 민족을 배신했던 더럽혀진 손으로 그린 임진왜란에 순절하시어 충절의 표상이 되신 중봉 조현선생의 영정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의 기록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조현선생의 지부상소를 올리던 강직함의 상징이었던 그 셔슬푸른 도끼날이 붉은 녹으로 스러지는 아픔을 보는 심정으로 영정을 다시 한번 본다. 칠백의 총 종용사 앞뜰을 지키고 서 있는 왜왕을 상징하려 만들어 냈다는 금송(金松 : 일본의 특산종)이 그 푸르름을 지키고, 친일의 작가의 손으로 그린 조현선생의 초상이 우리를 반기는 아픔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할 일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4 상반기 / 사업 및 활동



임호빈 청양문화원장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에 취임”

〈임호빈 회장〉

2024년 5월 10일(금)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제15·16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청, 청양군청 관계자와 16개 시·군 문화원장 등 각자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공로패 전수, 이·취임순으로 진행했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내 16개 지방문화원이 참여한 충남 최고 문화예술 조직으로 충남의 향토문화 발굴 보존과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제15대 이종석 회장이 이임하고 제16대 임호빈 회장이 취임했다.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

회의 발전을 기대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임호빈 신임회장에게 큰 기대를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임호빈 신임회장은 지난 4월 12일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청양문화원 제13대, 14대 문화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임호빈 회장은 ‘바닷물이 썩지 않는 비결은 3%의 소금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빛과 소금 같은 지도자가 되어 충남문화발전에 기여하며 16개 시·군문화원과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창달에 힘써 행복한 충남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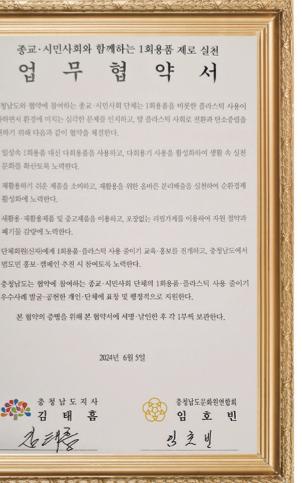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환경의 날 기념식 탄소중립 실천 ‘종교·시민사회와 함께하는 1회용품 제로 실천’ 업무협약

2024. 6. 5.(수) 아산시 신정호 일원에서 열린 ‘제29회 환경의 날(제3회 환경교육주간) 기념식’에서 일회용품 제로 실천 협약식 및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일회용품 제로 실천 문화 확산에는 도내 102개 종교계·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다.

종교계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성공회, 원불교 등 대한민국 대표 5개 종교가 참여하고,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35개 단체가 힘을 보탰다.

협약에 따라 각 단체들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용기 사용 분위기 확산, 재활용하기 쉬운 제품 소비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으로 순환경에 노력하며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도 이를 준수하기로 협약하였다.



▲업무협약서

충남문화원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문화리더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충남문화원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문화리더 워크숍'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진행하였다.

충남 도내 16개 문화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충남문화원이 나아갈 방안 마련, 문화예술 사업 추진 능력 향상 및 리더십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선진문화 현지 답사를 통한 지역문화 선진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충남의 해안문화와 관련하여 '바다에서 문화 희망을 찾는다 – 위대한 기록 최부의 표해록(漂海錄)'을 주제로 보령문화원의 신재완 원장님의 특강을 진행하였고 그 밖에 지방보조금프로그램 사용법 강의, 문화원 신규직원 소개 및 임·직원간 소통과 회합의 시간 등을 운영하였다.

현지답사로는 먼저 과거 50년 전에 지어진 요양병원을 업사이클링하여 만들어진 복합전시체험관 '제주홀리 뮤지엄'을 방문하여 제주도만의 지역특색을 바탕으로 5개의 콘셉트로 이루어진 전시체험 공간을 관람하며 충청남도의 문화예술과 지역특색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방법 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다른 복합전시체험관인 '고흐의 정원'은 반 고흐의 작품이 아닌 '인간 빈센트 반 고흐'가 주인공인 전시체험공간으로, 위대한 작가 반 고흐의 지난 삶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곳이며, 그의 작품을 눈으로만 볼 수 있었던 기존의 전시와는 달리 증강현실(AR) 앱을 통해 고흐의 작품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는 3D 착시아트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증강현실(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



미지를 겸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반 고흐의 작품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전시체험을 통해 증강현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충남지역 문화원에서 오랜 연구와 수집·발굴한 문화와 전통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표현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주도립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시대유감'과 제주도립미술관이 수집한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시 '기냥하곡 거념하곡' 전시를 통해, 20세기 한국 근현대미술 속 시대의 여러 단면들을 조명하고 수집과 기증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제주도립미술관의 제주사 미술 정립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보면서 앞으로 건립될 충남도립미술관 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 문화예술과 지역의 향토자료 발굴 및 보전에 힘써야 하는 문화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더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국립제주박물관을 방문하여 구석기시대 제주의 시작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제주 문화, 제주 섬사람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었다. 고고, 미술, 역사, 민속품 등의 다양한 기증 문화재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립제주박물관 지하에 있는 실감영상실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만든 몰입형 실감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고 제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담은 다양한 영상 속에서 새로운 제주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실감영상실의 '표해, 바다 너머의 꿈'은 워크숍 특강 주제인 '바다에서 문화 희망을 찾는다' 위대한 기록 최부의 표해록(漂海錄)'의 내용과 연계된 주제로, 첫날 특강을 통해 미리 자세한 내용을 듣고 마지막



날 영상을 통한 복습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문화원에서도 이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남긴 깊은 향기를 감상할 수 있는 실감영상실을 운영하면 전 세대가 문화에 대해 한결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제주도립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 미술 특별전 '시대유감'과 연계하여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국립제주박물관 특별전'은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2만 1천여 점에서 엄선한 대표 문화유산 360여 점을 소개한 전시로, 작품에 대한 해설 자료가 풍부하고 텍스트 QR을 활용한 영상이 돋보였다. 충남 도내 문화원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전시체험 방안 마련을 힘써 추진해 봄야 할 것이다.

이번 충남문화원 조직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충남문화리더 워크숍에서는 여러 복합전시체험관, 미술관, 박물관 현지답사를 통해 전시체험 프로그램 구성 방법에 따른 장단점 개선 방안과 접목 방안 등을 서로 논의하며 충남지역의 문화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충남 도내 16개 문화원 임·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 단결의장을 마련하였다.



◀ 우도해녀항일운동기념비



우도 표지석 ►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주시 우도면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연대운동이자 생존권 투쟁을 위한 해녀 항일운동을 알아보고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우도는 일제강점기에 비참한 삶을 영위하던 제주 해녀들이 힘겹게 채취한 해산물을 일제가 수탈하자 이에 항거한 300여 명의 해녀들이 1932년 1월 7일에 일으킨 항일운동이 있었던 곳으로 그 당시 해녀들은 무력으로 진압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항일의지 하나로 호미와 빗장으로 맞섰다.

'우도해녀항일운동기념비'는 우도 천진항 바로 앞에 있는 비석으로 그 당시 일제의 만행과 그에 맞서 싸운 해녀 항쟁을 잊지 않기 위해 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세운 것으로, 해녀항일운동의 비밀본거지를 제공했던 강관순이 감옥에서 지은 '제주도 해녀의 노래'가 쓰여있다.

다가오는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충남문화원에서도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맞서 싸운 항일운동과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방안을 위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문

전 문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남 도민은 문화의 주인이다 권리의 주체이며,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이에 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본 문

제1조(문화향유접근권)

충남도민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문화체육 시설과 공간,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조(문화예술교육권)

충남도민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고 ‘삶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조(문화표현자유권)

충남도민은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창작 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누려야 합니다.

제4조(문화다양성 보장)

도민과 충청남도는 지역, 연령,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문화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조(충남의 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도민과 충청남도는 문화시설, 전통문화유산, 문화행사와 축제 등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충남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충남 문화공동체 지원)

도민은 문화 창작과 향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고,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충남의 문화역량 신장)

충청남도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문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제8조(문화 협치)

도민과 충청남도는 충남의 문화권 실현을 위해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문화 협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9조(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의 참여)

도민은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충청남도는 도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제10조(평가와 의견수렴)

도민과 충청남도는 문화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도민의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문화권 신장을 위한 의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민은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어야 하며 도민과 충청남도는 문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문화격차 해소)

‘함께하는 문화’ 실현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도민은 서로의 표현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과 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3조(문화재정 확보)

충청남도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이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민과 충청남도는 충남도민 문화권 선언이 도민의 삶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합니다.

2020.10.29.

도민대표단 일동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10.10.

전국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남 문화

2024 No.30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